

경축

제5대 제2기 인천광역시의회 출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3인 모두는 '열린의정', '시민분위', '정책의회'를 구현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찬 미래 인천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고진섭 / 부의장 이근학, 유천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용근 / 산업위원회 위원장 한도섭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희출

의원 김소림, 지정구, 김용재, 조남희, 이명숙, 최만용, 박창규, 오흥철, 이병화, 정종섭, 최병덕, 박희경, 배영민, 강석봉, 강창규, 김성숙, 김을태, 신영은, 강문기, 허식, 노경수, 박승희, 성용기, 이은석, 이재호(이상 위원회 순)



2008. 8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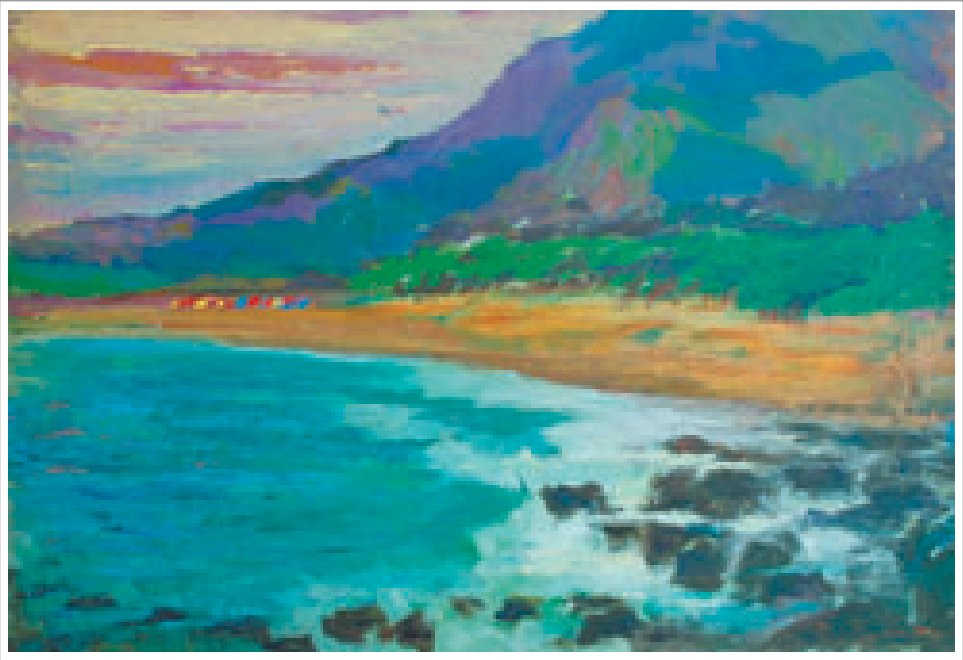
INCHEON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천광역시

백사장이 유난히 고운 그 바다



최완자 作 · 72.7cm×53.0cm · Acrylic on Canvas · 1995

1995년 8월 덕적도 해송 숲에서 하룻밤 묵으며 담아 낸 그림이다.
곳곳의 갯바위에 파도가 부딪치고, 긴 백사장이 유난히 고왔는데…
1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쯤 그 곳 풍경도 변했을까….

－ 최완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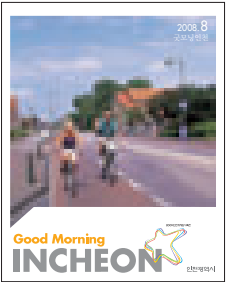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2008. 8

CONTENTS

August 2008 통권 176호



표지에 담는다 _____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사진:이형준)

Fly Incheon_

- | | | |
|----|------------------|-----------------------|
| 04 | 窓 2008 | 민선 4기 2주년 평가 |
| 06 | Vision | 송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
| 20 | 포커스 | 에너지 절약에 지혜와 힘을 모은다 |
| 22 | View | 관광 모노레일 착공 |
| 24 | Fly Incheon News | ‘아·태 모의유엔대회 개최’ 외 |
| 28 | 웰컴투 인천 | ‘아시아 주요도시 공무원 인천연수’ 외 |
| 29 | 군·구소식 |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로’ 외 |
| 30 | 시의회소식 | ‘인천시의회 개원 2주년’ 외 |
| 36 |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⑦ | 미국 호놀룰루 |
| 42 | 조명 |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
| 58 |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 영종도 |

Incheon Life_

- | | | |
|----|-------------------|------------------|
| 10 | 그린바캉스 | 인천 섬 팝스테이 |
| 16 | 여름방학 특집 | 체험 프로그램 |
| 34 | 동서남북 | 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
| 40 | 막스막下 | ‘여행스케치 콘서트’ 외 |
| 50 | Healthy Life 건강백세 | 눈병 |
| 54 | Info Box | ‘인천시 재활용품 공모전’ 외 |

Incheoner_

- | | | |
|----|-----------------|----------------------|
| 31 | 모닝인터뷰 | 시의회 고진섭 의장 |
| 32 | Zoom In | 인천시 홍보대사 |
| 44 | 인천역사책갈피 | 건국 60년, 되돌아본 인천의 발자취 |
| 48 |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열전 ⑦ | 건국의 큰 어른 ‘백범 김구’ |
| 51 | 김치철각 | ‘내 얼굴 먹지 마’ 외 |
| 52 | 독자글마당 | ‘피서지에서 생긴일’ 외 |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0) / 광고문의 (032-440-3052)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8년 8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공보관 김진택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편집위원 정경숙
사진 심영보·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해동종합기획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 공약 완료율 전국 1위

“인천을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민선 4기를 출범하면서 안상수 시장이 제시한 인천의 미래는 밝고 희망찼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가 눈에 드러나고 있다. 국내의 우수 언론사가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 완료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이 36.7%로 전국 1위다. 또 지자체 평가에서는 세계화 부문 1위, 행정·재정 부문 3위에 오르며 전체 순위 3위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글·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겠다!” 대망의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난 2006년 7월, 안상수 시장은 인천을 세계 속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등을 착착 진행하며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명품도시로서의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다. 우리시는 그동안 151층 인천타워, 인천대교, 연세대 송도국제대학단지, 송도테크노파크 등 국제도시로서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로 인해 국내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투자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본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지난 2006년 82억5천만 달러에서 2008년 5월 기준 468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각별하다. 지난 6월 20일 열린 151층 인천타워의 기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안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평화도시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아시안게임 시설 지원 등을 건의해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동력임을 확인시켰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가정오거리 재생사업인 루원시티와 송의운동장 재생사업인 송의아레나파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등의 공사를 착착 수행하고 있으며, 보상절차를 원활히 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고 있다.

도시에 푸른빛을 칠하며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생명의 숲 1천만㎡ 조성’ 사업은 목표치의 58%를 달성, 공원면적이 지난 2004년 56.32㎢에서 현재 69.1㎢로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천연가스(CNG)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며 생태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민선 4기를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이다. 이들 대규모의 국제행사는 동북아의 허브를 넘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비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이다.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킨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라는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한 민선 4기가 어느덧 2주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간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성과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내 우수 언론사가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 완료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이 212건의 공약 중 78건을 완료한 36.7%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민선 4기 중간평가에서는, 세계화 부문 1위와 행정·재정 부문 3위 등에 오르며 전체 순위 3위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품은 우리시는, 공항여객 수용규모와 주민 1만명당 항공운송업체수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세계화 최고의 순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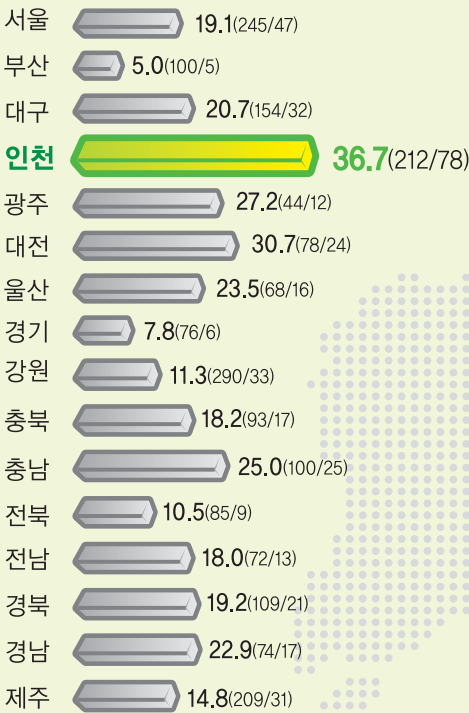
“세계에 인천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270만 시민과 함께 인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겠다.”

공약 완료율 전국 1위, 지자체 성과평가 3위에 빛나는 인천.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선 안시장의 포부는 당당하고 믿음직스럽다. 그는 앞으로도 273만 인천시민과 함께 꿈과 희망이라는 날개를 달고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



■ 전국 시·도지사 공약 완료율

(단위 %), ()는 계획/완료



출처: 동아일보(2008년 7월 3일자)

■ 지자체 성과평가

광역	종합		행·재정		인적 자원		생태 안전		인프라		세계화	
	평점	순위	평점	순위	평점	순위	평점	순위	평점	순위	평점	순위
서울시	506	1	97	5	118	1	85	12	137	2	69	4
울산시	465	2	107	1	74	15	92	9	136	4	56	8
인천시	452	3	99	3	66	16	73	15	128	5	87	1
전라남도	451	4	52	15	106	5	114	2	113	11	65	5
강원도	448	5	48	16	114	2	128	1	97	13	60	7
부산시	442	6	96	6	85	13	75	13	117	9	70	3
광주시	441	7	98	4	91	11	74	14	128	6	49	11
대구시	440	8	100	2	82	14	95	6	115	10	49	12
충청북도	439	9	64	11	96	9	108	3	119	8	52	9
제주특별자치도	439	10	61	13	112	3	99	5	83	15	84	2
대전시	438	11	92	7	100	6	93	8	104	12	49	14
경상북도	438	12	61	12	98	7	94	7	137	3	47	15
충청남도	428	13	67	10	97	8	101	4	120	7	42	16
경상남도	422	14	78	8	109	4	89	11	96	14	52	10
경기도	397	15	76	9	86	12	33	16	140	1	61	6
전라북도	367	16	54	14	92	10	90	10	83	16	49	3

※ 점수는 소수점 이상만 표기, 총점은 평점 합산 후 반올림

출처: 매일경제신문(2008년 7월 23일자)

복합 웰빙타운으로 다시 태어난다

송의운동장은 아스라한 추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그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천 체육의 산실에서 스포츠와 문화, 자연, 생활이 어우러진 복합 웰빙타운 송의아레나파크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것이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시 도시재생국



송의아레나파크 개발사업

- 위 치 : 인천 남구 송의동 180-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9만127㎡
- 사업기간 : 2005년~2013년(축구전용경기장은 2010년 완공)
- 사 업 비 : 7천51억원
- 시 행 자 :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송의운동장, 추억의 저편에 서다

불과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 70여년의 기나긴 인천 체육사가 희뿌연 연기에 묻혀 추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지난 6월 13일 지역 주민과 건설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의운동장의 발파작업이 있었다. 송의운동장은 1920년 현 제물포고등학교 부지에 윗터골운동장이란 이름으로 처음 세워졌으며, 1926년 확장공사를 거쳐 인천공설운동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후 1934년 현재의 자리에 터를 잡고, 전국체전을 비롯한 수많은 경기를 치르며 인천 체육의 산실 역할을 해 왔다. 이 곳에서 선수들은 인천의 이름을 걸고 열정을 다해 그라운드를 누볐고 시민들은 목청 높여 그들을 응원했다. 이렇듯 인천시민들에게 송의운동장은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서 삶의 활력소이자 모두를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화합의 장이었다. 그러나 2001년 문학종합운동장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송의운동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종합경기장의 자리를 내주게 된다.



- ① 축구전용경기장
- ② 수역시설
- ③ ④ 상업시설
- ⑤ ⑥ 주상복합(47F, 51F, 52F)
- ⑦ 주민공동시설
- ⑧ 소방파견소



웰빙타운으로 다시 태어난다

기나긴 인천 체육사와 함께 해 온 송의운동장 9만127㎡ 일대는 이제, 문화와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5월 7일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건설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공식을 시작으로, 송의운동장 재생사업이 첫발을 내딛었다. 이름 하여 ‘송의아레나파크’다.

안 시장은 송의아레나파크 기공식에서 “우리시가 세계 일류 명품 도시로 성장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에 가려 소외돼 왔던 구도심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시는 모든 역량을 다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개발이 끝나면 구도심을 주민들의 품에 되돌려 주겠다”며 송의아레나파크 개발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첨단 축구전용경기장으로

송의운동장 있던 자리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축구전용경기장이 세워진다. 경기장은 오는 2010년까지 1천1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립할 계획이다. 경기장 외관은 역동적이면서도 유연한 유람선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시를 상징한다. 또 FIFA 규격에 맞는 국제적인 수준의 구장으로 지어, 우리시의 프로축구 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구장과 2014 인천아시아대회의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송의운동장의 역사가 한눈에

축구전용구장의 지하공간에는 역사관을 만들어 송의운동장과 동고동락해 온 인천 체육사를 기릴 계획이다. 역사관 내에는 송의운동장의 발파 및 철거 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비롯해 경기장의 항공사진, 모형, 철거 구조물의 잔해 등을 전시한다.

» 스포츠·문화 명소로 떠오른다

새롭게 짓는 축구전용경기장은 단순한 운동장을 넘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화·휴식 공간으로도 거듭난다. 운동경기는 물론 콘서트 등 각종 문화공연과 이벤트, 체험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스탠드식 광장인 선큰(Sunken)가든을 조성, 자연광을 지하층까지 그대로 유입시켜 지상과 지하의 구분이 없는 입체적인 공간을 창조한다. 이어 경기장 주변에 피트니스 클럽, 축구체험 및 전시관, 스포츠바 등을 만들어 우리시의 새로운 스포츠·문화 명소로 떠오르게 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생활·자연을 누린다

송의아레나파크의 최종 목표는 오는 2013년까지 다채로운 즐거움으로 가득한 웰빙타운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크 내에 47층에서 52층 규모 3개 동의 고품격 주상복합을 세우고, 지하에는 상업·문화시설을, 지상에는 넓은 자연공간과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이를 도원역과 지하보도로 연결해 어디서든 접근하기 쉽도록 할 것이다.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문화와 스포츠를 접하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도심형 웰빙타운이 탄생하는 것이다.



송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1거점 2축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계획대로 2013년 송의아레나파크가 조성되면 우리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고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할 것이다. 지금, 송의운동장은 70여년의 기나긴 역사를 뒤로하고 스포츠와 문화, 자연, 생활이 어우러진 웰빙타운 아레나파크로 화려한 비상을 꿈꾼다. 🍌

우리시 주요 도시재생사업

도시의 변신은 무죄!

우리시는 지금, 명품도시에 걸맞도록 도시를 균형있게 개발하는 사업이 한창이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여덟 곳이며 사업비는 약 12조원에 달한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살펴본다.



▣ 최첨단 입체복합도시, 루원시티

우리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가정오거리는 루원시티로 거듭난다. 루원시티는 지상과 지하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미래형 교통시스템과 비즈니스와 주거,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최첨단 입체복합도시로, 지난 2004년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3년 완공할 계획이다.

▣ 일직선으로 뚫 뻗은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서인천 IC와 청라지구 7.49km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이 도로가 뚫리면 경인고속도로 노선이 기존의 서인천~인천항에서 서인천~루원시티~청라지구의 직선 형태로 바뀐다. 공구는 모두 네 구역으로 나뉘며, 지난 3월 2공구와 4공구가 공사를 시작하고 3공구와 1공구는 10월과 내년 6월에 각각 착공한다.

▣ 교육 클러스터, 도화지구

도화동 인천대 이전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88만천㎡를 주거·교육·문화·상업 시설을 갖춘 새로운 시가지로 건설한다. 공사는 지난 2006년 시작했으며 2014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역세권 재탄생, 인천·동인천역

최근 인천역 주변 44만㎡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경인전철 역세권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3년까지 차이나타운과 인천역을 연계해 관광과 문화 기능을 부각시킨 신 차이나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느림과 자유...

인천 섬 팜스테이

농·어촌에서의 하룻밤은 어린시절 추억과의 만남이자 자연과 사람의 만남이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올 여름 피서는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다양한 자연체험도 할 수 있는 '그린바캉스'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갯벌과 바다 그리고 흙내음이 물씬 나는 인천 섬의 팜스테이를 소개한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구수한 노랫 가락에 젖어본다

강화 용두레마을

강화군 내가면 황청1리의 용두레마을은 산과 바다 그리고 들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남쪽과 동쪽으로 봉화산과 국수산에 포근하게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 석모도와 서해바다가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서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용두레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있는 천수답에 퍼 올리는 재래식 물푸기 양수시설이다. 용두레질 노래는 예부터 논에 물을 끌어올릴 때 마을사람들이 구수한 노랫가락에 맞춰 다같이 일을 하던 일종의 노동요(勞動謠)이다. 마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 전통민요인 용두레질 노래는 1986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체험 프로그램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주민들과 함께 용두레질 노래, 시선 뱃놀이, 성터다지기 노래 등 강화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강화 순무김치 만들기, 경운기 타보기, 벼농사체험, 감자·고구마 캐기 등의 농사체험과 경운기 타고 5분이면 만나는 갯벌에서는 갯벌 맛사지, 서해낙조 보기, 갯벌생물 관찰하기 등 갯벌체험도 할 수 있다. 당일 체험비용은 점심 포함해서 1만5천원이고 1박2일은 마을 민박과 세 끼 식사 포함해서 5만원이다. 담당 | 정기철 사무국장 ☎ 010-9113-2829

봄 : 용두레들고사, 장담그기, 산나물채취, 두부·묵만들기
여름 : 한여름밤의 음악회, 갯벌체험, 바다낚시, 옥수수따기
가을 : 벼베기, 속노랑고구마캐기, 고추따기, 망둥어잡기, 등산
겨울 : 방패연만들기, 연날리기, 썰매타기, 겨울철새관찰
연중 : 용두레체험, 사물놀이, 경운기타기, 등산 및 산책, 전직지답사, 찹쌀떡만들기, 순무김치담그기

🍴 특산물 & 주요 먹거리

용두레마을은 특이한 토질과 기후 덕분에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특산물이 많다. 이 가운데 순무김치와 강화 용두레쌀, 뽕맹이젓은 용두레마을의 3미(味)로 꼽힌다. 용두레쌀은 밥을 지으면 고슬고슬한 데다 쫄깃해 그 맛이 일품이다. 비타민과 칼슘이 많다는 순무로 담근 순무김치의 알싸한 맛은 어디 비할 데가 없다. 곰삭은 강화도 뽕맹이젓은 도시민에게 바다의 기운과 고향의 구수한 손맛을 전해준다. 특산물로는 속노랑고구마, 메주, 상수리 목가루 등이 있으며 먹거리로는 병어회, 장어구이, 뽕맹이회 등이 있다.



📷 주변 관광지 정보

인근 외포리에서 배를 타면 석모도에 닿을 수 있다. 석모도에는 보문사를 비롯해 장구너머포구, 삼량염전, 어류정납시터 등이 있다. 마을 가까운 곳에는 계룡돈대가 있어 아이들에게 호국정신을 심어줄 수 있다.

🚗 교통정보

•승용차 : 인천(48번국도) → 강화대교 → 인삼센터삼거리 → 외포리 방향 → 황천리 용두레마을
•강화군 내 버스 : 강화버스터미널 황청리행 → 황청리 하차(30분 소요)
※ 황청2리 종점, 황청1리는 정류장이 없음.

푸른 바다에 사는 인어가 반긴다

장봉도 팜스테이

장봉도 선착장에 내리면 푸른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인어상이 여행객을 맞이한다. 장봉도는 섬 내 어느 봉우리에 올라가도 섬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작지만 아기자기한 멋이 곳곳에 담겨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3대 어장의 하나로 손꼽히던 장봉도는 광어, 송어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물이 빠지면 갯벌에는 조개나 낙지, 동죽, 바지락, 대합 등이 지천이다. 장봉도 팜스테이(웅진군 북도면 장봉리 1232번지 농촌체험관)는 자녀들과 같이 손에 흙을 묻혀가며 밭을 만들어 보거나 물 때에 맞추어 그물고기잡기와 꽃게(박하지)잡이 등 농·어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

주민과 함께 경운기로 밭을 갈아보거나 손이나 호미 등을 이용해 직접 감자와 고구마를 심는 등의 농사체험을 할 수 있다. 또 갯벌에서 대합, 동죽, 바지락 등 조개를 잡고 굴을 따고 모래성을 쌓고 해수욕을 즐기는 등의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갯벌체험은 1인당 5천원이고 단체 100명 이상인 경우 할인가능하다. 농사체험의 경우 종자 심기는 무료이며 수확기 때 시가에 따라 달라진다. 담당 | 현경숙 대표 ☎ 751-0921, 010-7751-0515

특산물 & 주요 먹거리

장봉도에서는 염산을 치지 않은 최고품의 김이 생산되며 당도가 높고 표피가 두꺼워 상품성이 높은 포도가 많이 난다. 해안가 거의 모든 갯벌에서 가무락, 상합, 동죽, 바지락 등을 잡을

수 있다. 특히 고급 어패류인 상합은 경기·인천 연안에서는 주로 장봉도 인근에서만 채취할 수 있다. 또한 섬답지 않게 고추, 감자, 고구마, 옥수수, 포도 등 각종 밭작물이 섬 곳곳에 널려 있다. 먹거리는 사시사철 풍성하다. 봄에는 상합구이, 회, 낙지, 생선회(송어, 우럭) 여름에는 바지락, 소라 가을에는 상합구이, 낙지가 입맛을 당기고 겨울에는 굴회, 굴밥, 갯굴구이 등 신선한 굴요리를 맛볼 수 있다.

주변 관광지 정보

장봉도에는 웅암해수욕장, 진촌해수욕장, 한들해수욕장 등 세 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이들 모두 경사가 완만하고 고운 모래가 펼쳐져 있으며 주위에 노송이 병풍처럼 쳐져 있어 분위기가 아늑하다. 섬 내에는 꽃밭과 오솔길 등 조경이 잘돼 있으며 조망이 좋은 장봉해림원이 있고 드라마 '홍콩익스프레스' 세트장도 있다.

교통정보

·승용차 :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신도시C → 신도방향 → 삼목선착장 → 장봉도행 승선(세종해운 ☎ 884-4155~6, www.sejonghaeun.com)
·대중교통 : 인천공항철도 → 운서역 하차 → 버스 701번 → 삼목선착장 → 장봉도행 승선 → 섬내 마을버스 이용

자연과 인간이 벗이 된다

신도 푸른벚말마을

신도는 영종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섬으로 시도, 모도와 연도교로 이어져 해변과 야산을 넘나드는 쪽길을 따라 세 개 섬을 구경할 수 있다. 진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라 하여 한때 '진염(眞鹽)'이라 별칭도 얻었던 신도는 땅이 비옥하고 초지가 많아 조선 초부터 고종21년까지 말목장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키운 말이 어마, 군마, 역마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푸른벚말마을(웅진군 북도면 신도3리)은 갯벌과 바다 그리고 논밭이 함께 어우러져 어촌과 농촌의 테마를 함께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체험마을이다. 이 소박한 섬에서는 물이 차면 해엄치기와 갯바위낚시를 즐기고, 물 빠지면 갯벌에 나가 머드팩을 하고 바지락과 동죽을 캘 수 있는 바다놀이의 천국이다.

체험 프로그램

조선왕조 말엽부터 사용해 온 푸른벚말 만의 전통적인 제조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 보고 포도 잎에 물감을 묻혀 한지에 알록달록 찍어 포도나무 판화를 만드는 이색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야생동물발자국 관찰, 갯벌생태지도 만들기, 옛날 뗏목타기, 섬 자전거하이킹 체험 등도 진행된다. 기본 프로그램 2개 체험시 점심 포함해 1만5천원이며 민박은 4인 가족 기준 1박에 4만원선이다. 담당 | 박찬선 총무 ☎ 011-795-4233

봄 : 손모내기, 산나물 캐기, 야생화관찰

여름 : 김매기, 피뽑기, 구봉산 생태탐방, 갯벌체험

가을 : 추수, 도토리묵만들기, 복숭아수확체험, 망둥어낚시, 상수리줍기

겨울 : 김치광만들기, 전통농주만들기, 퇴비만들기, 산짐승 발자국찾기

특산물 & 주요 먹거리

예로부터 신도는 소금 맛으로 유명하다. 바닷물을 농도 짙은 간수로 만들어 큰 가마솥에다 넣고 군불을 때 조려 만든 소금을 생산했다. 신도의 포도는 바닷가의 뜨거운 열기와 습도, 낮과 밤의 큰 기온 차,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등으로 당도가 높고



향기와 맛이 아주 좋다. 이외에도 다섯 가지의 곡식을 포장한 오색밥상, 웅진섬 고춧가루 등도 이 지역의 특산물이다. 주요 먹거리로는 진한 양념장보다는 심심하게 무쳐 향긋한 썩갠나 갯잎 등을 얹어 먹는 도토리묵과 갯벌에서 나는 모시조개, 바지락 등이 있다.

주변 관광지 정보

인천국제공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구봉산이 있는데 이곳 중턱에 있는 성지약수는 물맛 좋기로 이름이 나있다. 연도교를 이용해 시도로 건너가면 400여m의 모래사장이 펼쳐진 수기해수욕장이 있고 인근에 드라마 '연인', '풀하우스', '슬픈연가' 촬영세트장이 있다. 다시 모도로 건너가면 에로티즘을 표현한 조각 작품 30여점이 있는 모도조각공원이 나온다.

교통정보

·승용차 :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신도시C → 신도방향 → 삼목선착장 → 신도행 배 승선 → 신도3리 (세종해운 ☎ 884-4155~6, www.sejonghaeun.com)
·대중교통 : 인천공항철도 → 운서역 하차 → 버스 701번 → 삼목선착장 → 신도행 배 승선 → 섬 내 마을버스 이용



황금빛 석양에 나를 물들인다

무의도 까치놀이섬마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남쪽에서 불과 500m 떨어져있는 무의도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섬이다. 섬 양쪽으로 '서해의 알프스'라는 칭송을 들을 만큼 수려한 풍모를 자랑하는 호룡곡산과 국사봉 두 봉우리가 솟아있다. 고려바위, 마당바위, 부처바위 등 기암절벽이 있는 두 봉우리에 오르면 위쪽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내다보이고 서해쪽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위에 수많은 섬들이 떠있다. 까치놀은 석양을 받은 먼 바다의 수평선에서 번득거리는 노을이다. 무의 까치놀이섬마을(중구 무의동)은 멀리 수평선위로 황금빛 석양이 잠기는 까치놀을 볼 수 있는 청정마을이다.

☞ 체험 프로그램

깜깜한 어둠에 아랑곳하지 않고 햇불을 들고 갯벌로 나가 조개나 굴 따위를 채취하는 '해바리'라는 이색 체험을 한다. 느리지갯벌의 고운 머드 밭에서 신나게 미끄러움을 즐기는 갯벌놀이와 해변 운동회 등 바다를 친구삼아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다. 당일 체험은 점심 포함해서 1만5천원 선이고 1박2일은 숙박과 네 끼 식사 포함해서 5만원이다. 담당 | 이지준 이장 ☎ 010-7111-5422

봄 : 조개잡이, 까치놀이감상, 보물찾기, 벌버리(먹거리) 등

여름 : 하늘길산책, 해변운동회, 노젓는벳사공, 매끈매끈머드, 해바리체험(아간 체험)

가을 : 포도체험, 굴뽕&조개구이, 철새탐조, 망둥어잡이, 감자&고구마 수확체험

겨울 : 느리지일출, 작은 추억상자, 조개껍질모빌, 공예체험

🍴 특산물 & 주요 먹거리

산이 좋은 무의도에서는 영지, 느타리, 표고버섯 등이 생산되며 앞바다 갯벌에서는 낙지가 많이 잡힌다. 이밖에 바지락, 동죽, 수어, 굴, 우럭 등 해산물이 풍부하다. 먹거리는 단연 굴뽕구이가 손꼽힌다. 굴뽕은 바위에 붙어사는 굴이 아닌, 갯벌에 자생하는 굴을 말한다. '바다의 우유'라 할 만큼 영양이 으뜸인 굴을 갯벌에서 직접 채취하여 구워 먹는 별미를 즐기실 수 있다. 박대나 조기 같은 생선의 껍질로 만든 벌버리라 는 구수하고 쫄깃한 묵도 맛볼 수 있다.

📷 주변 관광지 정보

무의도에는 하나개 해수욕장과 실미(큰무리)해수욕장이 있다. 하나개 해변가에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 세트장이 그림처럼 서있다. 푸른 해송을 배경으로 깨끗한 백사장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실미해변은 바다와 숲의 정취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물이 빠지면 걸어서 영화 '실미도'의 촬영장소인 실미도로 건너가 섬을 둘러볼 수 있다.

🚗 교통정보

· 승용차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영종대교 → 용유·무의 이정표 → 해안도로 진입 → 잠진도 선착장 → 무의까치놀이섬마을(무의도해운 ☎ 751-3354~6, www.muuido.co.kr)

· 대중교통 : 인천국제공항(3층5번출구) → 버스 222번 → 잠진도 선착장 → 무의도행 승선 → 섬내 마을버스 이용(222번 강인여객 ☎ 751-1738)

물끝 따라 하루 종일 바다와 논다

무의도 큰무리마을

무의도는 큰 섬 대무의도와 작은 섬 소무의도 두 개의 섬으로 돼 있다. 섬 주변으로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어 물끝 따라 하루종일 바다를 밟아 즐길 수 있고 산행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무의도의 가장 큰 매력이다. 호룡곡산과 국사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무의도의 경관은 무척 아름답다. 큰무리 어촌체험마을(중구 무의동)은 섬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큰무리에 있다. 마을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여기저기 남아있는 조개 무덤과 화석 등을 볼 때 기원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많은 볼거리, 다양한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이다.

📁 체험 프로그램

마을이 갯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로 바다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갯벌에 나가 게잡이와 조개잡이를 하며 보트를 타고 무인도에 내려 잠시나마 로빈슨크루스가 돼 보는 이색 체험도 해본다. 밤에 햇불을 들고 갯벌이나 바위 틈에 있는 게, 소라, 낙지를 잡는 해바리라는 이색 추억거리도 만든다. 갯벌체험은 1인당 8천원(숙박비, 식비 불포함)이며 해바리체험과 무인도 체험은 1인당 2만원이다. 담당 | 이경우 사무장 ☎ 011-668-9832

🍴 특산물 & 주요 먹거리

갯마을답게 굴(겨울), 바지락(연중), 낙지(3월말~6월, 9월~10월), 동죽(연중), 꽃게(5월~6월말, 9월~10월) 등이 갯벌에서 많이 잡히고 앞바다에서는 바다낙시로 광어, 우럭, 숭어 등을 많이 잡는다. 가을에는 당도가 높아 맛이 좋은 섬포도를 곳곳에서 수확한다. 시원한 바지락 갈국수와 꽃게탕, 굴밥 등은 빠질 수 없는 먹거리다.

※ 프로그램 등은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www.into.go.kr 참고)

세어도에서 도시의 묵은 때를 씻는다

세어도(서구 원창동 11번지)는 멀리뛰기라도 하면 달을 것만 같은 코앞의 섬이지만 배편 때문에 도시의 오지(奧地)로 남아 있다. 덕분에 이 섬은 때타지 않은 청정구역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섬 둘레가 1천 걸음에도 못 미치는 이 작은 섬에 현재 24가구 50명이 살고 있다. 세어도에서는 고기잡이, 갯벌놀이, 섬 산책 등 '원초적 놀이'를 한가롭게 즐길 수 있다. 섬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갯벌에서 바지락과 고동을 캘 수 있고 앞바다에서는 소형어선을 빌려 숭어와 농어를 낚시할 수 있다. 세어도의 어촌 체험은 현대마린개발(☎ 885-0001, http://happycruise.co.kr)에서 진행한다. 체험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갯벌체험(섬 내), 바비큐파티(선상), 레크리에이션(선상), 마술공연(선상), 해수스파(인천연안부두) 등 당일 체험으로 진행한다.



📷 주변 관광지 정보

큰무리에는 선녀바위가 있다. 옛적에 선녀가 내려와 그 바위에 발자국을 남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의도에는 한낮에도 햇살 한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우거진 소나무 숲이 있는 하나개해수욕장과 실미(큰무리)해수욕장이 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 '칼잡이 오수정' 세트장이 있다. 한여름철에는 한그물 맨손고기잡이축제와 무의도 여름바다 춤축제를 즐길 수 있다.

🚗 교통정보

· 승용차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영종대교 → 용유·무의 이정표 → 해안도로 진입 → 잠진도 선착장 → 큰무리마을(무의도해운 ☎ 751-3354~6, www.muuido.co.kr)
· 대중교통 : 인천국제공항(3층5번출구) → 버스 222번 → 잠진도 선착장 → 무의도행 승선 → 섬내 마을버스 이용 🍀

야호~ 신나는 방학 체험의 바다에 ‘풍덩~’

여름방학이다. 2학기 준비도 해야 하고 미뤄 놓은 공부에, 방학숙제도 해야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여름방학은 밖으로 나가 놀기에 좋은 때다. 그렇다고 무작정 놀기만 한다면 왠지 불안하고 허전하기도 할 터. 인천에 널려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갯벌의 생명력 몸으로 느껴요 소래습지생태공원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이 이름을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바꾸고 전시관을 지어 새단장했다. 주차장을 지나면 바로 만나게 되는 전시관은 전시실과 영상실, 기획전시실, 전망대 등으로 꾸며졌다. 1층으로 들어서면 왼쪽방향부터 관람이 시작된다. 1층 전시실은 인천과 습지,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갯벌, 소래염전에는, 청정인천으로 등 4개의 존으로 꾸며져 있다. 패넌을 보고, 터치스크린을 만지고, 핸들비전을 들여다보면서 차근차근 생태와 갯벌과 염전에 대해 알 수 있다.

1층 전시실을 둘러보고 2층으로 오르면 영상실이다. 갯벌과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물을 보면서 1층에서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익혔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영상실 밖으로 나오면 기획전시실이다. 지금은 ‘인천 옛날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3층 전망대에 오르면 갯벌과 염전, 추가로 조성될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광활한 대지가 한눈에 들어와 가슴이 탁 트인다. 망원경에 눈을 대면 멀리 있는 옛 소금창고, 염전 위를 걷는 염부의 모습이 바깥 눈앞으로 다가온다.

이제 몸으로 체험할 차례. 밖으로 나오면 전시관 앞쪽에 갯벌체험장이 펼쳐져 있다. 칠게, 방게, 가지게 등이 어린이들과 숨바꼭질 하듯 갯벌 밖으로 나왔다가 구멍 속으로 숨어들어간다. 구멍을 파고 칠게를 잡아 올린 아이의 함성이 드넓은 갯벌만큼이나 시원하다. 날씨가 맑고 운이 좋은 날에는 염전에서 직접 소금을 굽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수차를 직접 발로 돌리고, 소금밭에 들어가 가래로 소금을 긁으며 굽는 땀방울을 흘리는 동안 조금씩 소금 알갱이들이 모이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 손에 개흙이 잔뜩 묻어도, 발이 찢물에 흠뻑 젖어도 괜찮다. 전시관 옆쪽으로 샤워장이 마련돼 있다. 사시사철 따뜻한 물이 나오니 갈끔쟁이 엄마도 안심이다.

도심에서 ‘나도 농부’ 월미공원 전통정원

지난 5월 도심 속 한복판에 밀짚모자를 쓰고 바지를 뚱뚱 걷어붙인 어린이들 한 떼가 출현했다. 조동초등학교 어린이와 시민 100여명은 월미산 자락에 자리잡은 월미공원의 한국전통정원에서 전통손모내기 체험행사를 갖고 허리를 굽혀 직접 논에 모를 심고, 벼에 생길 해충을 잡아 먹을 우렁이를 논에 뿌리며 벼가 잘 자라기를 기원했다. 마치 파란 잔디밭을 펼쳐 놓은 듯한 벼가 좀 자라면 잡초를 뽑아내는 ‘피사리’를 직접 손으로 해주어 할 터이다.

논 옆에는 각종 밭 작물들이 자라고 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콩, 깻잎, 오이, 가지, 호박, 수박, 참외...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채소들이 키재기를 하고 있어 시골 할머니댁 밭을 옮겨 놓은 듯 하다.



체험방법

오전 10시~오후 6시(입장은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 다음날은 전시관이 문을 닫는다. 이용요금은 따로 없고 전시물 설명과 안내를 받으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갯벌체험은 예약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435-7076

채소들이 뜨거운 햇볕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 교과서에서, 백과사전에서 보았던 호박꽃, 오이꽃, 쪽삭 꽃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식물도감이 무슨 필요이라.

이제 감자가 자라고 고구마 씨알이 굵어지면 ‘감자캐기’, ‘고구마캐기’ 같은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가을에 벼가 누렇게 익어 머리를 숙이면 또 전통방식으로 벼 베기 행사도 가질 예정이라는 것이 서부공원사업소 노승운 팀장의 설명이다.

한편 밭 앞쪽에는 운치 있는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맷돌, 절구, 연자방아, 우물 등 전통 방식의 농기구와 옷, 제기, 굴렁쇠 같은 놀이기구가 마련돼 있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맷돌을 돌리고 절구를 찼어 곡식을 갈아 보는 것은 믹서를 돌리는 것과 또 다른 체험을 하게 해준다.

체험방법

월미공원전통정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농작물 관찰과 전통놀이 체험 등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체험행사는 농작물이 자라는 것과 때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뤄지니 눈과 귀를 열어 놓아야한다. 전화로 문의하면 대충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서부공원사업소 ☎ 440-4633



오묘한 색채의 미술 천연염색

만의골에 자리 잡은 풀내음 천연염색 자연관찰체험학습장은 천연염색을 통해 오방색의 신비함과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공간이다. 예약을 통해 풀내음에 도착하면 우선 천연염색 이론 수업을 시작한다. 염색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는 동안 매염제, 색의 삼원색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과학과 미술 수업도 절로 이뤄진다. 염색에 대한 기본을 익힌 후 홀치기와 디자인 수업에 들어간다. 옷감에 예쁘고 다양한 색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수업을 통해 나만의 디자인과 색을 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제 머리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차례. 천연염색 실습이다. 오늘 남동구지역아동센터에서 15명의 아이들이 풀내음으로 체험을 나왔다. 손수건 한 장씩을 받은 아이들은 저마다 별모양, 네잎클로버, 동그라미, 하트 등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고 강사인 후리지아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종이 접기를 하듯 손수건을 차곡차곡 접는다. 그리고 고무줄로 팽팡 묶으면 홀치기 완성이다. 이제 염색을 할 차례. 나무뿌리 소목을 끓여 낸 붉은 색, 치자를 끓인 노랑색, 쪽으로 색을 낸 파랑색. 세 가지 물감 중 원하는 색에 손을 넣어 조물락 조물락 거린다. 원하는 만큼 색이 물든 손수건을 꺼내 조심조심 고무줄을 끊어 내면 별, 동그라미, 하트, 네잎클로버가 어느새 손수건에 자리잡고 있다. 원하는 모양

체험방법

천연염색 수업은 30명 이상 모여야 할 수 있다. 때문에 개인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로 주말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방·손수건 등 어디에 염색을 하느냐에 따라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비용이 다르다. 염색 후에는 천연바누 만들기, 쪽개떡 만들어 먹기 등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 471-1002, 011-9759-8129

을 가진 아이들은 저마다 뿌듯~한 얼굴이다.

천연 염색을 하는 동안 조상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물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일석 삼조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연사랑 쑥쑥 자란다 생태체험

우리시는 도심에 생명의 숲을 만드는 사업을 벌이고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숲속의 자연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인천대공원, 월미산, 녹지관리사업소 등에서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것.

특히 인천대공원은 생태체험의 보고이다. 공원 안에는 자연생태원이 있어 아이들이 생태체험을 하기에 제격이다. 산새자연교실, 나무자연교실, 가족교실 등의 이름으로 자연학교가 열린데 이어 방학기간에도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일반인, 가족단위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학교가 열린다. (*자세한 일정은 본지 56쪽 참고) 자연학교에 참가하면 생태원으로 이동해 그날그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나비가 알을 낳을 때는 알을 관찰하고, 식물이 씨앗을 맺을 때는 씨앗 옮기기도 해보고, 거미가 먹이를 잡는 모습을 관찰하는

등 다양한 체험과 관찰이 가능하다. 생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지도자가 직접 안내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어느 생태교실보다 체계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인천대공원 자연학교는 개인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일주일 전에 전화로 사전 예약 접수해야 한다.

☎ 440-4956

한편 월미산에서도 생태교육이 진행 중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월미산 자

연학습장에서 생태교실이 운영된다. 개인별로 다음카페 월미산(<http://cafe.daum.net/wolmizikim>)에서 접수하면 된다.

녹지관리사업소는 3월부터 11월까지 나무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린스쿨(Green School)'을 운영한다. 관찰로 2km, 식물원 2개동, 자연학습장 연못 등이 갖춰져 있어 생태체험하기에 제격이다. 자연학습장과 습지식물원, 온실과 꽃이 자라는 현장 등을 둘러보며 나무이름 알기, 나무 끌어안기, 나무냄새 맡기, 나무 관찰하여 발표하기 등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목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선착순 60명이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http://green.incheon.go.kr>)나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 440-6193

내 손으로 빛는 세상 도예체험

강화 화도면 마니산 자락에 자리잡은 한국강화문화예술원에서는 숲 체험과 도예공예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문화예술원 야외, 실내 전시장에는 현대 도예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한국 현대도예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상설 현대도예 미술 체험실에서는 전통과 현대도예를 접목한 다양한 기법의 도자기 공예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도예체험은 대학교수, 대학강사, 도예작가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체험은 물론 수준 높은 작품 활동까지 가능하다.

도예 체험이 끝난 후에는 마니산 숲 체험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원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마니산과 연결되니 정상까지의 등

체험방법

도자기 체험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 두 차례씩 진행된다. 재료비, 지도비는 따로 없고 건조, 초벌 구이 등을 원할 때는 소성비만 내면 된다. ☎ 937-9320, 011-9104-6997, 018-324-9072 로 미리 예약해야 한다.

반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은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해 마음껏 숲 향기를 맡을 수 있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 진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원인재 문화체험

인천이씨의 근원지로 인천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원인재가 사시사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눈길을 끈다.

여름방학을 맞아 원인재에서는 도자기 제작, 서예, 로봇제작, 조경, 곤충기르기, 서각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2시간 혹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되는데 강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원인재에서의 체험프로그램은 역사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느 체험 프로그램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인천의 문화재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이라 우리 고유의 전통을 느끼고 체험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체험방법

매주 토요일 시간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화나 이메일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 815-5888, 016-309-5888, yre57@hanmail.net





에너지 절약에 지혜와 힘을 모은다



초(超)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리시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 승용차 홀짝제, 실내 적정온도 27℃ 유지,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운행금지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규범을 정해놓고 에너지 절약에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에너지를 아껴쓰는 일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인류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민들과 함께 인식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하장원 시 공보관실

지난 7월 7일 부슬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 안상수 시장은 자택에서 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작전역에 내렸다. 이어 인천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 내려 집무실까지 걸어서 출근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도 남동구 관교동에 있는 관사에서 걸어서 출근했다. 이날은 우리시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직원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차없는 날'로 지정한 날

이었다. 평상시에는 직원들의 출근차량과 민원인들의 승용차로 늘 북새통을 이루던 시청 주차장은 종일 한산했다. 우리시는 7월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버스를 통근버스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시와 각 군·구에서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퇴근시 시내 주요 전철역에서 승용차를 함께 타고 내리는 카풀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업무용 콜택시제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교통 방해로 에너지 소모를 가중시키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10분 늦게 불켜고 10분 일찍 불끄는 '10·10운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한편 가로등 격등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등에 대한 전반적인 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스카이72 골프장 등 인천지역 골프장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권장하는 한편 목욕탕의 격주 휴무제 및 유홍음식점과 무도장에 대한 시간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형 음식점 및 대형 상가의 네온사인 간판에 대한 시간제 운영을 적용한다. 일반 기업들에게 권장하는 에너지 절약 조치는 앞으로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해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방안도 각 실·국별로 마련하고 있다.

우리시는 지난달 8일 대회의실에서 시와 군·구, 산하기관, 공기업 등의 에너지 담당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초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신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식경제부 진중옥 기후변화협약팀장이 '온실가스 감축방안',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박영구 박사가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주제로 강의에 나서 담당 직원들의 에너지절약 마인드를 높였다.

한편 우리시는 초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수산정수장 소수력발전을 이용한 수력발전기 350kW 1기 조성사업에 이어 인천대공원 내 30kW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및 남부소방서 태양열 급탕설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시는



- | | | |
|---|---|--|
| 1 | 2 | 1. 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안 시장
2. 인천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안 시장
3. 시청의 경우 직원은 차량 2부제, 민원인은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
| | 3 | |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

- 승용차 홀짝제(2부제) 시행
- 관용차량의 운행 30% 감축
- 2012년까지 현 관용차량의 50%를 경차 혹은 하이브리드차로 전환
- 적정 실내온도를 여름철은 27℃, 겨울철은 19℃로 유지
- 엘리베이터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 기념탑, 분수대 등 경관조명 사용금지
- 가로등 심야시간대 부분 소등(가로등 격등제)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각종 자료를 분석, 종합해 연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떠나요~ 모노레일 타고 월미도로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월미도의 푸른 낭만을 만끽한다! 관광 모노레일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미도 관광특구 내에 도입돼 지난 7월 공사에 들어갔다. 이제,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는 2009년이면 모노레일을 타고 월미도 일대를 품에 안을 수 있다.

글·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인천교통공사



미래 교통수단, 모노레일을 아시나요?

도시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자동차와 전철뿐이라는 편견을 버려라. 바로 차세대에 떠오르는 신 교통수단인 모노레일(Monorail)이 있다. 우리시와 인천교통공사가 관광 모노레일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 월미도 관광특구 내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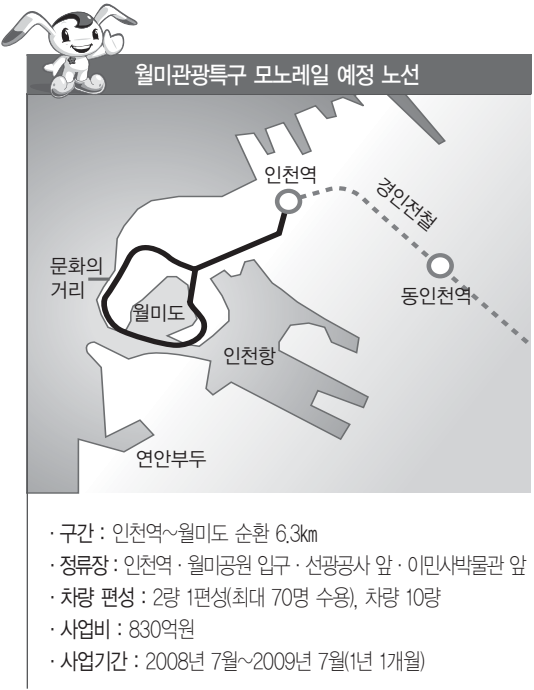
지난 7월 4일,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미도 이민사박물관 옆 잔디구장에서 ‘인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의 기공식이 있었다.

모노레일은 경전철(LRT·Light Rail Transit), 자기궤도버스(GRT·Guided Rapid Transit) 등과 함께 주목받는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이 중 모노레일은 고가(高架)의 다리 위에 단선 레일을 깔고 전차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작아 도심 속을 편리하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건설비가 낮고 무인운행이 가능해 유지비가 적게 들며, 건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없는 것도 모노레일의 매력이다.

모노레일 타고 월미도를 품안에

모노레일은 오는 2009년 6월 완공한 뒤 시운전을 거쳐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기 전인 8월 즈음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모노레일은 인천역에서 출발해 월미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오는 6.3km의 순환노선을 달리게 된다. 정류장은 인천역, 월미공원 입구, 선광공사 앞, 이민사박물관 앞 등 4개소다. 차량은 두 칸(2량)으로 최대 70명이 탈 수 있으며, 시속 40~50km에 5~15분 간격으로 무인운행하게 된다.

또 관광객이 열차에서 내려 도심 속을 여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한다. 시는 2011년까지 중구 신포동 문화의 거리에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로 이어지는 길이 2.9km, 너비 24m의 보행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길 곳곳에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작은 녹지 및 쉼터를 만들고, 이 곳에 전시회와 노천시장 등을 열어 관광객의 발길을 모을 계획이다.



여행가는 길이 즐거워진다

우리시는 모노레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반시설이 미흡한 관광명소들을 하나로 연결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월미도에 이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 동인천역, 자유공원을 잇는 3.7km 구간에 2차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행지에서의 추억만이 여행의 전부는 아니다. 일상을 떠나 여행지로 향하는 길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거기서 느끼는 감흥 역시 여행의 일부분이다. 모노레일을 타고 하늘과 가까운 곳을 달리며 인천을 품에 안고, 중간에 열차에서 내려 여유롭게 시내를 둘러보는 상상, 생각만으로도 즐겁다. 🐦





아·태 모의유엔대회 개최 20개국 180여명 참가

제3회 아시아태평양 모의유엔대회(APMUN : Asia Pacific Model UN Conference)가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있었다.

우리시와 한국유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 ESCAP)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의 대학생 38개팀 18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유엔 의사규칙에 따라 국제문제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실천계획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회의 주제는 '2015년까지 유엔 밀레니엄 개발계획의 달성, 일반 통념을



넘어서는 전향적인 실천'이며, 세부 주제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재난·빈곤 경감', '지식기반경제 구축',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지역간 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APMUN는 유엔의 공식 후원기구인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이 후원해 아·태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가상의 유엔 총회로, 2004년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2006년 인도 델리에서 제2회 대회가 열린 바 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열린 제3회 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기구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인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3981

아·태관광학회 총회 내년 개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관광학회(APTA) 총회가 내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우리시는 내년 총회에 '인천 관광산업 발전'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지역 관광산업을 조명할 계획이다. 또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안게임을 앞두고 인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토대로 삼을 계획이다. APTA는 1995년 설립된 세계적인 관광 분야 국제학술단체로, 현재 한국·일본·중국·미국·인도 등 아·태 지역 22개국 400여명의 관광 분야 학자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44

2009 인천방문의 해 보고회 개최

우리시는 2009 인천방문의 해에 총 2천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하고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사업에 주력기로 했다. 시는 지난 7월 16일 '2009 인천방문의 해 보고회'를 열고 4개 분야 52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인천방문의 해의 전담여행사 30곳을 정하고, 해외 주요 여행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나라별 패키지 개발과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인천방문의 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안내소와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67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새로운 지리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우리시 지역을 보다 정확히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지적도, 도시계획도, 대규모 사업의 개발 계획도를 중첩시킨 후 사용자가 투명도를 조절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공사진 상의 거리 및 면적 측정 기능 등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도 추가했다. 이 시스템은 먼저 시를 비롯 구·군청 등에서 시범 운영하고, 올 하반기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된다.

문의 | 시 토지정보과 ☎ 440-3475

환경부와 협약, 친환경 도시 건설



우리시는 지난 6월 30일 환경부로부터 환경과 관련한 기술·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협약을 체결, 인천을 친환경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이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선진화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우리시와 환경부는 국제환경행사 유치와 관련한 국고지원을 비롯해 국내·외 초청인사 섭외 및 진행 협력 강화, 환경부 주관 국제환경행사 인천유치, 환경부 간부 직원 도시축전 조직위원회 파견근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시 환경보전과 ☎ 440-3513

송도국제도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송도국제도시를 친환경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6대 실천전략이 지난 7월 1일 발표했다.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2020년 대중교통 수송 분담 목표를 45%로 정하고, 승용차 30%, 자전거 10%, 택시 7% 등으로 분담하는 계획을 세웠다. 경제청은 향후 대중교통 수송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 도심과 경기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저상버스와 천연가스(CNG)버스를 우선도입하고,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217km, 자전거전용도로 237km를 각각 조성하는 등 친환경 교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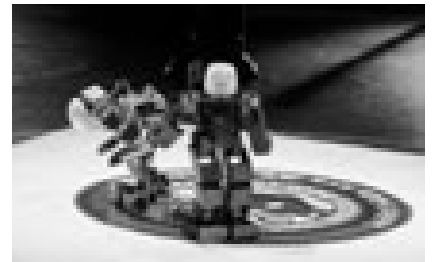
남동공단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



우리시의 남동산업단지가 친환경 산업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우리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7월 16일부터 특정유해물질 배출 업종에 한해 남동산업단지 내 입주를 제한하고, 유해물질 배출시설 증설을 전면 제한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특정유해물질 배출 업종 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입주 제한 대상 업종은 도금업, 도장업, 화학물질제조업 등 특정대기유해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배출하는 37개 업종이다.

문의 | 시 공단환경관리과 ☎ 440-3693

T-City에 로봇서비스 시스템



인천 송도지구 투모로우시티(T-City : Tomorrow City)에 구축할 로봇서비스의 분야가 확정됐다. 경제자유구역청, 지식경제부, SKT는 지난 7월 16일 'T-City 로봇서비스 시스템 개발 사업 발표회'를 열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우리시는 SKT가 개발한 로봇시스템을 구매해 활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단일기관 서비스로봇의 수요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구축되는 로봇은 안내로봇, 서빙로봇, 포터로봇, 패트롤로봇, 야외홍보로봇 등으로 2009년 8월 T-City의 개장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송도에 애니·게임산업단지 조성

송도국제도시에 애니메이션과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4공구 13만657㎡ 규모의 지식기반 서비스용지 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애니메이션·게임·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제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 국내외 업체들과 접촉, 투자 심의를 거쳐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기업인 동우애니메이션과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게임 업체들과 입주를 협의 중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클린 앤 그린 인천항 조성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생태 숲 조성공사’ 준공식이 지난 7월 30일 있었다. 이번 공사는 중구가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클린 앤 그린 인천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국립인천검역소 등의 담을 허물고 그 자리에 2만7천여그루의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 중구 주민생활지원국 ☎ 760-7122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7월 12일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진행했다. 아름다운 토요일은 물품 기증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공사 임직원들은 이번 행사에 총 1천500여점의 물품을 기증하고 직접 판매했다. 이날 얻어진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이게 된다. 인천교통공사는 이 외에도 헌혈참여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 인천교통공사 ☎ 430-7321

시정 현안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

우리는 시의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구성을 마치고, 청와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태스크포스에는 안상수 시장을 단장으로 이창구 행정부시장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시의 주요 간부들이 참여한다. 우리시가 태스크포스를 통해 중앙 정부와 합동으로 추진할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관리권 이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인천국제공항 3단계 조기건설 ▲2014 인천아시아게임 지원 ▲경제자유구역과 남북경제협력도시 조성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지원 등이다. 태스크포스를 통해 시의 역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 440-2133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내년 개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내년 우리시에서 열린다.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전국상임회장단 회의에서 제1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의 개최지로 인천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대회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는 내년 9월 중에 열릴 계획으로, 개막식에는 지미 카터 전(前) 미국대통령과 레스터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장 등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또 브라질 꾸리찌바, 일본 요코하마, 이탈리아 볼로냐 등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의 대표단이 대거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세계지속가능도시포럼’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 433-2122

홍종일 정무부시장 취임

홍종일 정무부시장이 지난 7월 2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시작했다. 취임식은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홍 정무부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우리시는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20여년간 쌓아 온 정당 활동의 경험과 지식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 필요한 모든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 행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힘 쓰겠다”고 뜻을 밝혔다. 홍종일 신임 정무부시장은 인하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민정당 재정국 간사로 정당생활을 시작했다. 그 뒤 신한국당 중앙당 정책부장,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을 거쳐 2003년 7월부터 한나라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한편 퇴임한 어윤덕 제9대 정무부시장은 지난 7월 15일 인천발전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인천지역의 발전에 힘을 계획이다.

문의 | 시 총무과 ☎ 440-2412



송도테크노파크 R&BD 클러스터 착공



‘송도테크노파크 R&BD 클러스터’ 착공식이 안상수 시장과 고진섭 시의회 의장 및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8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있었다. 이날 착공한 R&BD 클러스터는 오는 2011년까지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내 3만6천여㎡ 부지에 단계적으로 건립해, 국내외 연구·벤처 인력이 활동하는 ‘지식생태계’로 조성한다. 먼저 2010년까지 25층 BT센터를 짓고, 2011년까지 IT센터와 메카트로닉스센터 등 총 5개동을 세워 연구시설과 제조시설,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국외 합동 에어포트 세일 추진

우리시가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에어포트 세일(Airport Sales)을 진행했다. 에어포트 세일 추진단은 백은기 시 항만공항물류 국장을 단장으로 한 물류 관련 기관 관계자들로 홍콩, 마카오, 중국 청도, 연태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세일즈에서 공항항만 물류 관련 글로벌기업의 임원을 초청해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또 현지 공항과 항만 등을 방문해 물류산업 시장을 발굴하고, 우리시 항만공항 물류 분야의 비전을 홍보했다.

문의 | 시 항만공항물류과 ☎ 440-3452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이 지난 7월 7일자로 3국 1본부 체제에서 4본부 체제로 개편됐다. 이는 현실에 맞게 사무를 정비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조직 및 본부별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획조정본부는 기획정책, 운영지원, 예산평가, 규제개혁, ▲도시개발본부는 도시개발계획, 송도개발, 영종개발, ▲도시관리본부는 건축지적, 도시관리, u-City 사업, 용유·무의·청라, 영종관리, ▲투자유치본부는 프로젝트 지원, 지식산업, 서비스산업 등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우리시와 법무부가 법질서를 확립, 신뢰 높은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은다. 안상수 시장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일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로 협의했다. 시는 특히 우리시 곳곳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을 도모하고 투명한 건설을 실현하는데 주력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질서 확립 목표를 ‘클린건설, 안전건설 실현’으로 정하고, 법무부와 산업재해예방 등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 ☎ 02-2110-3463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종합대책 추진



우리시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종합대책(안)’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원산지표시의 시행에 대비해 관련 홍보물 16만부를 음식점 및 일반시민 등에 배포했다. 이어 간담회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하고, 시를 비롯해 군·구 담당과장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음식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를 홍보하고, 10월부터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해, 올해 말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시 농정과 ☎ 440-2973

송도에 복합영상미디어센터 추진

우리시가 일본 오릭스사와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키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릭스사는 송도 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1만3천여㎡에 사업비 2천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복합영상미디어센터가 세워지면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에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미디어센터를 총망라한 ‘디지털콘텐츠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매년 5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웰컴 투 인천 · 인천을 방문한 VIP 이모저모

라오스 NOC 위원장 방문



라오스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푸통 위원장을 비롯한 라오스 NOC 대표단이 지난 7월 17일 우리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라오스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스포츠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키 위한 것으로, 두 도시는 비전 2014프로그램에 따른 태권도 지원사업 및 2009 동남아시아경기대회 지원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시아 주요도시 공무원 인천연수



아시아 주요도시에서 온 중견 공무원들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우리시를 방문 ‘아시아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를 받았다. 이들은 연수 기간 동안 경제자유구역, 도시재생, 국제교류 등 17개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워크숍에 참가했다. 그리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우리시의 국제사업에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아시아공무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제교류 활성화에 힘쓸 방침이다.

주한 파나마 대사 방문

후안 호세 아마도(Juan Jose Amado) 주한 파나마 대사를 비롯한 파나마시티 대표단이 지난 7월 11일 우리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두 도시의 대표단은 우리시와 파나마시티가 자매도시로 상호협력하는 관계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파나마시티 대표단은 송도경제자유구역 홍보관을 시찰,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우리시의 비전을 직접 확인했다.

리비아경제협력대표부 방문



마사우드 알갈리(Masaud B. Alighali) 주한리비아경제협력대표부 대표가 지난 7월 18일 송도국제도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우리시는 이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축전 기간 동안 열리는 아·태 도시 정상회의(APCS : Asia Pacific Cities Summit)를 홍보했다. 이어 걸프 파이낸스 하우스(GFH) 회장의 인천 방문을 알갈리 대표와 협의했다. GFH는 중동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알갈리 대표는 또 13개국 아랍·아프리카 대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르단 독립기념일 행사 개최



요르단 독립기념일 경축행사가 지난 7월 10일 중동문화원에서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안상수 시장과 이브라힘 알 마와지다(Ibrahim Al Mawjdeh) 장군을 비롯해 주한이집트대사, 주한이라크대사, 주한튀니지대사 등 주한아랍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요르단 홍보영상 상영, 요르단 패션쇼, 아랍식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안 시장은 우리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하도록 적극 지지해 준 요르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중동문화원을 지원하는 등 한국과 중동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대만 타오위엔현 대표단 방문

대만 타오위엔 현 의회 현장인 쟁중이를 비롯한 대만 방문단이 지난 6월 30일 우리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타오위엔 현은 대만 IT산업을 이끄는 신죽개발구가 자리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원예산업이 발달한 도시다. 대만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비롯한 우리시의 개발상을 벤치마킹해 타오위엔의 경제발전에 기여키 위한 것이다. 이날 대표단은 두 도시의 우호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국제행사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1

군·구 소식

중구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로

중구 자유공원이 오는 10월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된다. 이 거리는 자유공원 내 전동파출소부터 제물포고 후문 구간 580m와 한국회관부터 홍예문 구간 480m 두 군데다. 이들 걷고 싶은 거리는 점토 재질의 보도블록과 가로수로 조성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게 된다.

문의 | 중구청 ☎ 887-101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동구가 ‘출산·입양 축하금’을 지급, 출산 장려에 앞장 선다. 구는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입양아 또는 셋째 이후 출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 한 명당 1백만원씩의 출산·입양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의 | 동구청 ☎ 761-0151

남구 환경정비의 날 운영

남구는 기초질서 생활화운동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수봉공원에서 환경정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과제 캠페인과 계도 활동 등이 진행됐다.

문의 | 남구청 ☎ 887-1011

연수구 복합문화예술공간 개관

연수구 동춘동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인 ‘디오아트 갤러리’가 지난 7월 4일 문을 열었다. 갤러리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야외전시장에 피비우스 띠, 철 인간 등의 설치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는 예술 아카데미와 와인강좌를 열 계획이다.

문의 | 연수구청 ☎ 817-1011

남동구 행정서비스 전국 최우수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행정서비스현장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지난 7월 2일 국무총리 상을 수상했다. 구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보건행정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의 | 남동구청 ☎ 466-3811

부평구 영어전용구역 개관

부평구는 산곡북초등학교에 영어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지난 7월 15일 개관식을 가졌다. 영어전용구역은 원어민 영어교육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구는 산곡북초교를 시작으로 5개 학교에 교육비 총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부평구청 ☎ 527-5911

계양구 실내형 복합 테마파크 조성

오는 2010년 계양구 계산동에 실내형 복합 테마파크인 ‘마블테마파크’가 문을 연다. 마블테마파크에는 아이언맨, 헐크 등 유명 캐릭터를 활용한 4차원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쇼핑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문의 | 계양구청 ☎ 551-5701

서구 무인 기계로 악취 방지

서구의 악취관리지역 다섯 곳에 무인 악취포집기가 설치됐다. 기계가 저장된 악취의 농도와 풍향, 풍속 등의 자료를 구청 환경보전과의 중앙 컴퓨터로 보내면, 구는 이를 악취를 관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문의 | 서구청 ☎ 562-5301

강화군 연륙교 하반기 착공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연륙교가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12년 말 개통된다. 연륙교는 사업비 904억원을 들여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와 교동면 봉소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44km, 왕복 2차선 규모로 건설된다.

문의 | 강화군청 ☎ 930-3114

옹진군 어초시설 투하

옹진군은 지난 7월 10일 자월 해역에 어초시설 6기(18톤/기당)를 투하했다. 이는 어족자원을 확보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키 위한 것으로, 인공어초시설은 올 12월까지 백령도 고봉포, 선화동 해역, 대청도 동남 해역 등에 집중 투하된다.

문의 | 옹진군청 ☎ 899-2114

교육청소식

차량 2부제 운영, 시교육청 에너지절약에 앞장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 나근형교육감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에너지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여름철 냉방온도를 27℃에서 28℃로 1℃상향 조정하며, 베타이를 매지 않는 간소한 복장을 하길 권하고 있다. 또 7월 1일부터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확대운영,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에너지절약운동은 지역교육청을 비롯한 전 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실용성 있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인천시교육청 홍보팀 ☎ 420-8225

시의회 소식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News

당선 축하화분 이웃사랑 환원



인천시의회가 지난 7월 9일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당선 축하 화환을 매각, 불우 이웃을 돕는다. 이날 행사는 시의회가 사전에 당선과 관련한 축하 화환을 받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배달되는 화분의 처리방안을 고심하던 중 이뤄졌다. 이에 시의회는 당선 축하 화환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전달,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키로 뜻을 모으고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日 독도만행 철회 결의안 채택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17일 제16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만행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에서 “273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일본의 독도와 관련된 계락을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은 국제질서와 관례에 역행하는 행태를 자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우리시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시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일본 기타큐슈시와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등을 전격 취소했다.

인천시의회 개원 2주년 행사



‘인천시의회 제5대 의회 개원 제2주년 및 의회개원 제17주년 기념’ 행사가 안상수 시장을 비롯 역대 의장 및 전·현직 의원, 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7일 시의회 중앙홀에서 열렸다. 기념행사는 의장 기념사와 운영위원장의 의정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고진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5대 의회 후반기 2년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대한 시기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 시의 주요 사안에 따라 상임위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제2기 의회 출범에 따른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인천항발전 강연회 개최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회’가 지난 7월 8일 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위 의원 및 인천항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강연은 인천항의 발전 방안을 모색기 위해 올해 세 번째로 열렸다. 강사로 초청된 국토연구원 유재영 교통연구실장은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천항의 발전 방안’을 강의했다. 참가자들은 또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교통체계와 연계한 인천항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9월부터 시민 뱃삿 50% 할인

오는 9월부터 연안여객선의 운임비가 50% 할인된다. 이는 지난해 인천시의회에서 통과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인천시민들에 한해 연안 여객선 전체 항로 요금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운임비가 지원되면 올해까지 여객이 9만8천명 가량 증가하고, 내년부터 연간 18만7천여명의 관광객이 인천의 섬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인천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코자 ‘입법·법률고문’을 7월 10일자로 위촉했다.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박봉국 씨 등 입법고문 3명과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박철원 씨 등 법률고문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입법·법률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회 관련 입법과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으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인천시의회 홍보팀 ☎ 440-6052

‘신뢰 받는 열린 의회’ 만들 터

인천시의회가 제5대 2기 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2년 임기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제5대 2기 시의회 의장에는 고진섭 의원이 선출됐다. 고 신임 의장은 지난 1991년 부평구의원으로서 정계에 입문해 3선을 거쳐 기초의원을 지냈으며, 인천시의원으로 지난 4대에 입성, 재선했다. 이어 시의회 1부의장에는 이근학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유천호 의원이 각각 당선됐으며,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윤지상 의원이, 문교사회위원장에는 김용근 의원이, 산업위원장에는 한도섭 의원이, 건설교통위원장에는 문희출 의원이, 운영위원장에는 이상철 의원이 각각 뽑혔다.

다음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을 목표로 제5대 2기 시의회를 이끌어 갈 고진섭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시의회 5대 2기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273만 시민을 대표해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시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대단위 도시재생사업,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회도 이에 맞춰 설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의장 혼자만의 힘이 아닌 동료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요.

제5대 제1기 의정활동을 분석하고 보완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주민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연구 활동 등으로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시가 추진하는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다면, 시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제5대 2기 인천시의원 33명 모두는 ‘열린의정’, ‘시민본위’, ‘정책의회’를 모토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천 시민들도 이러한 시의회를 믿고 희망찬 미래 인천 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



인천 비전과 희망 알리는 ‘메신저’

요즘 우리시 만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도시가 있을까?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굵직굵직한 행사도 기다리고 있다.
그만큼 알리고 홍보해야 할 것이 많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명예 홍보대사가 활동하고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하장원 시 공보관실

지난 3월 인천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들의 힘을 빌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알리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홍보부문에 대해 명예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우리시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부평사회복지관 관장 신광열 씨와 사진가 최병관 씨 그리고 크리스천 헤럴드 한국지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수웅 씨 등 3명이다. 모두 인천 발전에 그동안의 공이 크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인사들이다.

지역의 명망 인사, 내가 ‘인천 알리미’

신광열 씨는 그동안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자문위원으로 여러 나라 주한 대사들에게 도시축전을 적극 홍보하고, 2014 인천아시안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외국대사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또한 21개국 주한 대사를 초청해 외국인을 위한 국제사회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이 인천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힘써 왔다.



소래포구 작가로도 유명한 최병관 씨는 민간인 최초로 비무장지대를 촬영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997년부터 98년까지 휴전선 155마일을 도보로 세 차례나 횡단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휴전선 155마일 최병관의 450일간 대장정’ ‘38도선 현대의 비경전’ 등 총 8권의 사진집과 2권의 시모음집, 23회에 걸친 개인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사진작가로 우뚝 섰다.

한편 간수웅 목사는 (사)인천시 여성장애인복지증진회 대표이사로서 크리스천 헤럴드 U.S.A 한국지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해외 선교사로서 남미의 파라과이와 칠레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2004년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 재직하면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힘써왔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지역 인사들이 2009년 12월 31일 임기까지 우리시의 중요한 국제행사를 홍보하고 경제자유구역, 구도심 재창조 등 시정의 주요 현황을 홍보하는데 힘을 기울이니 든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2008 인천국제악기전시회에는 프로젝트 그룹 이바디의 멤버 호란과 거정, 저스틴 김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인천국제악기전시회에서 축하공연을 갖는 등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시안게임 유치에 힘 보탠 홍보대사

우리시의 홍보대사는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적인 4인조 혼성그룹 보니엠(Boney M)이 2005년 7월 ‘인천홍보대사’로 선정된 것. 레게풍의 디스코 댄스곡과 발라드로 70~80년대 한국에서 최고 인기를 끌었던 보니엠은 전 세계를 돌며 콘서트를 여는 동안 인천을 위해 기꺼이 홍보대사가 되었다.

그리고 같은해 8월, 국민가수이자 아시아의 별 조용필 씨를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평양 공동 개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그 해 조용필 씨는 하반기 전국투어를 평양에서 시작해 10월 15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비록 인천과 평양의 공동개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대사들의 노력은 IOC위원들이 인천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낙점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는 스포츠 부문으로 이어진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동아대 문대성 교수와 삼성생명 유승민 선수가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를 위해 우리시의 홍보대사가 됐다.

한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아시안게임 유치 1주년인 지난 4월 17일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기원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시 출신으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메달리스트 48명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우리시의 힘이 닿지 않는 부문에서 홍보대사들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여러 인사들에게 우리시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대해 있는 힘껏 알리고 전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

1	2	4
3		

- 2008 국제악기전시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그룹 이바디의 멤버 호란
- 2014 아시안게임 인천-평양 공동개최 홍보대사 조용필
- 인천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는 최병관, 신광열, 간수웅 명예홍보대사(사진 왼쪽부터)
- 문대성 · 유승민 홍보대사



물 홍보에서 전국연극제 홍보까지



미추홀 참물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해 ‘미추홀 참물’ 홍보대사를 운영했다. 홍보대사를 맡은 이는 2006 미스코리아 선으로 당선돼 인천의 미를 알렸던 박사론 씨였다. 박사론 씨는 상수도사업본부의 B 선포식, 물사랑포스터, 글짓기 대회, 물사랑 정원 준공식 등 공식 행사에 얼굴을 비추고 깨끗하고 맑은 물 ‘미추홀 참물’을 알렸다. 그리고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ICN 케이블TV를 통해서도 활동했다. 한편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우리시에서 전국연극제가 열렸다. 100년의 연극여행을 테마로 한 전국연극제를 홍보하기 위해 우리시는 연극인 최종원, 전무송, 송옥숙 씨를 전국연극제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우리가족 든든한 주치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모든 이의 소망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을 정확하게 검진하고 각종 건강 사업을 펼치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든든한 건강지킴이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돌보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건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며 오래도록 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회색빛 도시 안에서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보면 몸은 어느새 하나둘 이상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마음 놓고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본적인 검사를 하려해도 비용이 몇 십 만원을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주 피로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현기증이 나는 등 몸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이 되면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저렴한 검진비에 정확한 진단은 기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40여년 이상 쌓아온 건강검진 노하우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의 경우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시민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처럼 협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우수한 검진인력과 최첨단 의료장비, 친절한 서비스 등 여러 까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검진비가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는 검진수수료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으로 기본적인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일반 병원에 비해 40% 이상 저렴하다. 검사비는 남자의 경우 전립선과 간암 검사를 포함해 20만원 선이며, 여자는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 등을 포함해 21만원 대이다.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 가격에 20%를 더 할인받을 수 있다. 내과, 방사선과, 산부인과 등 각 과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최첨단 의료시설을 바탕으로 한 빠르고 정확한 검진은 기본이다. 두세 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자신의 몸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나오면 전문의가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

공익사업으로 체감온도까지 높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는 건강검진 외에도 다양한 건강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금연·절주·스트레스 및 비만 예방 등을 상담하고 관련 강좌를 열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군인과 경찰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금년도 금연클리닉에 참가한 인원 가운데 33%가 3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했다. 협회는 또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공익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의료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도서벽지의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의 노인, 장애우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사정을 헤아리는 저렴한 검진비에 200%의 믿음을 주는 정확한 진단, 여기에 36.5도의 따뜻한 온기까지 덧입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건강지킴이가 곁에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

미니인터뷰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책임지겠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허윤영 본부장

건강은 행복한 삶을 살기위한 우선 조건이다. 지난 6월 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로 부임한 허윤영 본부장은 시민들이 협회에서 건강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한다. “저희 협회는 첨단 의료장비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는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이면 건물 2개 층이 늘고 첨단 CT 및 장비가 도입돼 검진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허 본부장은 또 이 같은 의료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저렴한 검진비와 정확한 진단을 보장하는 건강관리협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저희 협회에서 건강을 찾고 환히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 예약방법** 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한다.
- 주의사항** 검진 받기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검진 당일에는 물을 포함한 음식을 일체 먹지 않는다. 검사결과는 직접 협회에 내원해 듣거나, 일주일 정도 후에 등거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 찾아가기** 남구 송의2동 송의로타리에서 제물포역 방면 하나은행 옆 건물에 있다. 전철은 제물포역과 도원역에서 10분 정도 걷고, 버스는 좌석버스 105번, 일반버스 3·4·5·6·14·17·17-1·22·23·27·33·41·45·46번을 이용한다.
- 문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인천지부 ☎ 884-7131, 2 www.kahpich.or.kr



반짝반짝 빛나는, 호놀룰루

태평양에 떠 있는 미국 하와이 주(州)의 중심은 오래 전 왕족의 근거지였던 호놀룰루다.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진주만과 반달모양의 와이키키 해변으로 대변되는 호놀룰루는 전 세계인이 선호하는 휴양지이자 명품도시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해변부터 극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레스토랑, 낭만적인 카페, 화려한 쇼핑물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재래시장까지. 어느 곳을 방문해도 변화무쌍한 즐거움이 가득한 호놀룰루로 떠난다.

글 · 사진 이형준 <바다 위의 낭만 크루즈 여행> 저자



폴리네시아 문화센터에서 전통춤을 추고 있는 원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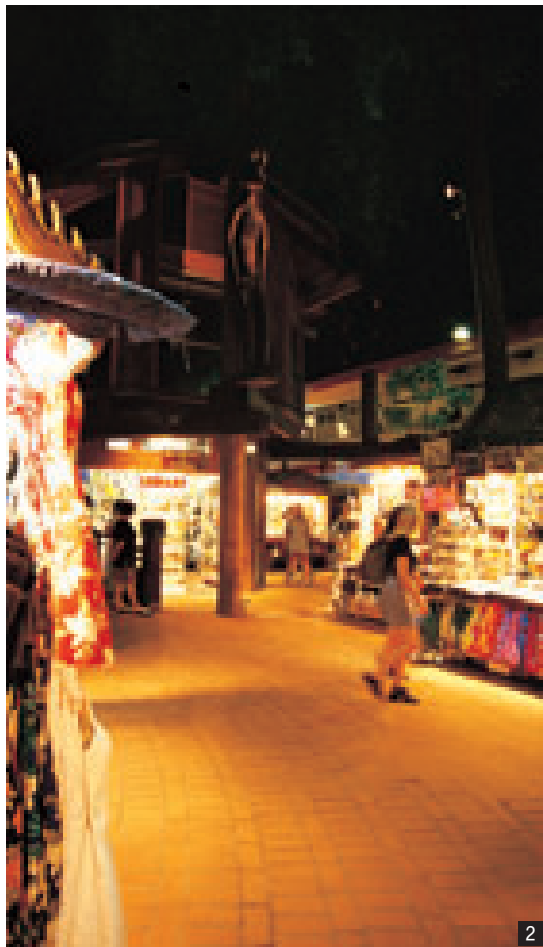
맑고 투명한 자연과 호흡하다

하와이 군도의 중심 호놀룰루는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를 지닌 오아후 섬에 터를 잡고 있다. 하와이를 구성하는 여러 섬 사이를 운항하는 크루즈 유람선에서 바라본 호놀룰루는 한 폭의 그림이 연상될 정도로 아름답다.

크루즈 유람선에서 해변으로 발을 옮기면 때 묻지 않은 청정함이 기다리고 있다. 항구는 뉴욕이나 시애틀처럼 크지는 않지만 태평양을 따라 길게 산책로가 이어지는데, 한 시간 남짓 걸어도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다. 깨끗한 거리는 항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카메하메하 대왕의 동상이 세워진 킹 거리와 이올라니 궁전이 자리한 리처드 거리도 마찬가지다. 킹 거리와 리처드 거리가 교차하는 궁전 앞 잔디밭에서는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도심 한가운데서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것 하나만 보아도 호놀룰루가 얼마나 청정한 도시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미국의 어느 도시처럼 호놀룰루도 환경을 중시한다. 얼마 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잡지 <모노클>이 수준 높은 생활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했다. 영예의 1위는 환경도시로 널리 알려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이 차지했는데, 이 발표에서 하와이는 미국 도시로는 최고 평가에 해당하는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호놀룰루가 이토록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빼놓을 수 없다.

수퍼페리 선사에서 사용하는 항구의 환경을 개선하기 전까



지 페리의 운항을 중단한 수퍼페리 사건은 당국과 시민이 환경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페리의 운항을 재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판결에 담긴 속내를 보면, 환경과 기업활동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물론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이 판결에 불만을 갖고 자연친화적인 항구를 외치고 있지만, 당국은 경제의 주체인 기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호놀룰루가 자리한 오아후 섬을 중심으로 이웃의 크고 작은 섬에서는 요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이 참가해 재생 가능한 모든 물건을 활용하는 대규모 친환경 프로젝트로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 즐기기

호놀룰루가 세계적인 명품도시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안전한 치안과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다. 하와이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어느 대도시와 다른 치안상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명품쇼핑몰이 몰려 있는 와이키키 중심가와 칼라카우아 거리이든 각 지역에 터를 잡은 재래시장이든 늦은 밤까지 쇼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뿐인가. 연인이나 부부끼리 해변에서 일몰을 감상한 후 해변에서 차와 음료를 마시며 밤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늦은 시간에 숙소로 돌아가더라도 신체적인 위협을 못 느낄 정도로 안전하다. 호놀룰루의 치안 상태는 어느 도시에서도 경험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호놀룰루로 불러 모으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하와이 주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섬의 도시역시 그렇다.

누가 뭐래도 하와이하면 관광이다. 전체 산업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호놀룰루는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다. 택시는 물론 버스와 렌터카를 이용해 쇼핑몰이나 해변, 미술관, 박물관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여러 관광인프라 가운데 돋보이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이다. 주요 명소와 쇼핑을 경유하는 호놀룰루의 명물 와이키키 트롤리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패스를 이용하면 횡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단기 체류자와 방문객을 위해 마련한 4일짜리와 1개월짜리 패스를 끊으면 지정된 기간 동안 와이키키 트롤리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와이키키 해변만으로도 도시는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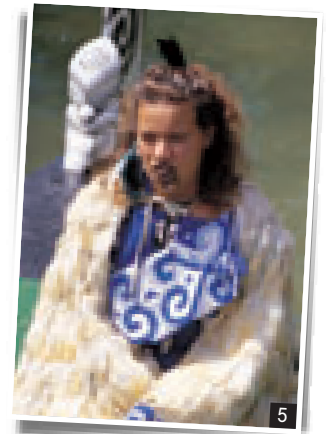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호놀룰루는 지상 최고의 해변을 보유하고 있다. 강렬한 햇살과 부서지는 파도,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으로 대변되는 와이키키 해변은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해변이다.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촬영장소인 와이키키 해변은 그 유명세 덕분에 세계적인 부호와 유명 연예인들의 고급 별장과 호텔이 즐비하다.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듯 일광욕을 즐기는 여행객과 수영과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마니아들이 찾는 매혹적인 해변에서, 특히 못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서퍼다. 서퍼라면 누구나 와이키키 해변을 찾아 거대한 파도를 타고 곡예를 펼치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한적한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호놀룰루에서 조금 떨어진 하나우마 베이를 찾는 것이 제격이다. 반원에 가까운 하나우마 베이는 일광욕과 수영은 물론이고 스노켈링과 스킨스쿠버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바다 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해변에서 아름다운 코널피쉬들과 스노켈링을 즐기고, 바다 속을 탐험하고 싶다면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세계적인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와 환상적인 해저 풍경을 감상하면 된다.

호놀룰루의 관광인프라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는 외곽에 자리한 폴리네시안 문화센터다. 와이키키 해변과 하나우마 베이가 해양스포츠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면 폴리네시안 문화센터는 명품도

시 호놀룰루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이 곳에서는 하와이 원주민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타히티, 피지, 통가, 사모아, 마르퀘사스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음악과 춤, 풍물을 감상할 수 있다. 더욱 이곳은 모든 방문객들에게 직접 폴리네시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진정한 문화공간이다. 명품도시의 반열에 오른 호놀룰루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자랑거리가 많다. 청정한 호놀룰루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탄탈루스 언덕을 필두로 팔리 전망대, 한적한 휴식에 적합한 알라모아나 비치, 패러세일링과 서핑, 제트 스키에 적합한 마날루아와 샌디 비치 등. 오늘날 호놀룰루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떠오른 것은, 청정한 환경과 기업하기에 좋은 여건, 안전한 치안과 편리한 관광인프라 등이 조화를 이룬 덕분이다. ♡



2. 미국의 대도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치안이 잘 확보된 호놀룰루 밤거리
3.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이동수단 중 하나인 와이키키 트롤리
4. 과거 하와이 왕국을 다스렸던 카메하메하 대왕의 동상과 이올라니 궁전

5. 전통적인 복장과 분장을 하고 방문객을 맞는 원주민
6.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폴리네시안 문화센터를 둘러보는 방문객들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여행스케치 콘서트



여행스케치는 1989년 여름, 서울·경기지역 여러 대학의 노래꾼들이 모여 결성된 보컬그룹으로 음악적 기초를 '포크록'에 두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모토로 출발했다. 이번 무대에서 인공적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악, 서정적이고 수수한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사할 것이다.

일시 _ 8월 16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찌리재홀

티켓 _ 전석 6,000원

문의 _ ☎ 777-9140~8 www.iecs.go.kr

파페라 라스페란자

'희망'이라는 뜻의 이태리어 라스페란자로 창단된 4인조 남성 파페라 그룹이다. 구성원 전원이 성악전공 뮤지컬 배우로 클래식과 가요, 팝송, 제3세계 음악, CCM 등 전 장르에 걸쳐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는 '라스페란자'는 이름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노래로 희망을 줄 것이다.



일시 _ 8월 23일(토) 오후 2시

장소 _ 한중문화관

티켓 _ 무료

문의 _ ☎ 760-7860

인천시립극단 뮤지컬 소금장수



작품이다. 긴장감 넘치는 구성과 함께 우리의 전통가락과 춤사위를 곁들임으로 야외공연만의 특별한 신명과 감동을 줄 것이다.

일시 _ 8월 8일(금)~17일(일) 오후 8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티켓 _ 전석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극단 ☎ 420-2790

이용복 콘서트

1970년에 데뷔하여 한국의 레이 찰스로 불리며 10년 가까이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던 이용복의 추억 어린 목소리를 들어본다. '그 얼굴에 햇살이', '어린 시절', '줄리아', '안개속의 여인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활발한 활동을 했던 그는 이번 공연에서 특유의 탁월한 음색과 빼어난 기타솜씨로 청중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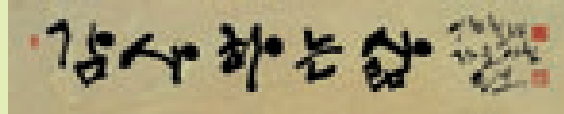
일시 _ 8월 22(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전석 1,500원

문의 _ ☎ 505-5995

우보 민승기 기증 작품 특별전



시간체를 결합한 한글 '우보체'를 창안해 한글 서예계의 독특한 서풍을 이끌어왔다. 이번 기증 기념전시는 평생의 작품성고를 인천문화재단에 무상 기증함으로써, 서예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향수기회 제공을 희망하는 우보 선생의 뜻을 기려 인천문화재단이 준비했다.

7월 25일 ~ 8월 20일 : 디지털 세계미술사체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소전시실	8월 22일 ~ 28일 : 인천수채화협회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8월 1일 ~ 8월 7일 : 제10회 서양화그림벚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8월 22일 ~ 28일 : 미우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8월 4일 ~ 8월 11일 : 딸기의 즐거움 현대미술전 / 신세계갤러리	8월 22일 ~ 8월 28일 : 인천바로알기 중주전 / 신세계갤러리
8월 5일 ~ 8월 30일 : 부평 젊은 기수전 / 부평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8월 29일 ~ 9월 4일 : 이명지 흑백사진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8월 8일 ~ 14일 : 한윤기 아름다운 땅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8월 29일 ~ 9월 4일 : 인천서예학술연구회 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8월 12일 ~ 8월 19일 : 공감과 교감의 사이전 / 신세계갤러리	8월 29일 ~ 9월 4일 : 사진모임 새빛 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8월 15일 ~ 21일 : 제14회 서양화 예흔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8월 29일 ~ 9월 4일 : 박정선 개인전 / 신세계갤러리
8월 22일 ~ 28일 : 황해미술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8월 29일 ~ 9월 11일 : 인천문화재단 우보 민승기 서예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전시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월	5 APOA 워크숍(1일~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6 2008 출세향 무용단 창작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863-5474	7 인천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일반 1만원, 학생 7천원 인음합버오케스트라 ☎ 888-0808	8 APOA 특별콘서트 오페라 <라보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 R석 2만원, S석 1만원 인천&아츠 사무국 ☎ 420-2027~8 피아니스트 문미선 음악회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1천5백원 ☎ 505-5995 인천시립극단 '소금장수'(17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5천원 ☎ 420-2790	9 청소년을 위한 퓨전 클래식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6시 / 1만2천원 ☎ 1588-2341 어린이가족뮤지컬 '인어공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1만5천원 중원극회 ☎ 02-3474-4620 오창현과 함께 하는 매직콘서트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10 청소년을 위한 신나는 클래식 음악여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5시 / 1만원 월드뮤직 ☎ 1588-2341 어린이가족뮤지컬 '인어공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1만5천원 중원극회 ☎ 02-3474-4620
11	12	13 제8회 월미국제 음악제 실내악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3만원, 2만원, 1만원 ☎ 876-8646	14 제8회 월미국제음악제 건국60년 광복절경축전야제 (클래식의 향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 876-8646 I-dance 2008 앵글 "출주는 동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 1만원, 5천원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15 광복절 경축행사 8.15 모닝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 초대 ☎ 440-2213 제8회 월미음악제 크로스오버 뮤직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3만원, 2만원 1만원 ☎ 876-8646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 1만2천원 극단서울도깨비 ☎ 02-747-4608	16 제8회 월미국제음악제 재즈 축제의 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3만원, 2만원 1만원 ☎ 876-8646 여행스케치 공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찌리재홀 오후 3시 / 6천원 ☎ 777-9140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1만2천원 극단서울도깨비 ☎ 02-747-4608	17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내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야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 2만원, 1만2천원 에이원예술기획 ☎ 1588-2341 제4회 청소년밴드 축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찌리재홀 오후 3시 / 무료 ☎ 016-219-3173
18	19 조이밴드와 함께하는 러브클래식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 1만원 ☎ 1588-2341 교육뮤지컬 햄버거OK, 야채 NO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찌리재홀 오전 11시, 오후 2시 1만2천원 ☎ 016-250-0560	20 청소년 여름방학 클래식 음악회-오페라 아리아와 합창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3시 / 전석 7천원 시립합창단 ☎ 420-2784 교육뮤지컬 햄버거OK, 야채 NO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찌리재홀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오후 2시 / 1만2천원 ☎ 016-250-0560	21 청소년 여름방학 클래식 음악회-오페라 아리아와 합창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3시 전석 7천원 시립합창단 ☎ 420-2784 부평기적의 도서관 한여름밤의 음악회 부평기적의 도서관 야외공연장 오후 6시 ☎ 505-0612~3	22 금요예술무대 아르헨티나 탱고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오후 7시 30분 / 무료 ☎ 420-2022 엘레리, 폴레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찌리재홀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1만원, 8천원 ☎ 010-5084-0493 이용복 콘서트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1천5백원 ☎ 505-5995	23 2008 아르헨티나 탱고 페스티벌 in INCHEON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 3만원 이벤트 넷 ☎ 02-322-6442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한국무용)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파페라 '라스페란자'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24 린나리오케스트라초청 시민을 위한 한여름 밤의 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오후 7시 임미희 오페라단 ☎ 265-8683
25	2008 제12회 인천청소년연극제 8월18일(월) ~ 9월6일(토)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28	29 금요예술무대 열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갈라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오후 7시 30분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022	30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합창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오후 7시 / 무료 인천시립합창단 ☎ 420-2784	31 제3회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오후 7시 30분 세렌딕뮤직아카데미 ☎ 432-9839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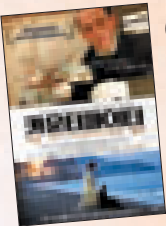
영 화 공 간

주안

인 더 풀



독특한 코미디 감각을 인정받고 있는 미키 사토시 감독의 작품인 <인더풀>은 <공중그네>를 쓴 오쿠다 히데오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소설의 이라부 의사가 그대로 등장하며, 내용은 <공중그네>의 속편 성격이 강하다. 비현실적인 상황을 재치 있는 유머로 녹여낸 연출력이 돋보인다.



60여년 전 독일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대규모 위조지폐 사건과 작전에 투입됐던 실존 인물 '살로몬 스몰리아노프'를 모티브로 제작, 2008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작품. 카메라의 담담하고 건조한 시선은 극도로 객관화된 역사 고발과 함께 그 누구도 단죄할 수 없는 시대의 아이러니를 한껏 고조시킨다.

카운터파트

※ 영화공간 주안은 인천시 남구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으로, 일반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개관시간은 오후 1시부터 10시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 427-6777

‘송도’에 동지 틀고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난다



인천대학교가 송도캠퍼스로의 이전, 국립대 법인화 전환 등을 앞두고 제2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979년 개교한 이래 1994년 시립화로 도약을 이룬 후 두 번째 비상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인천대학교

2006년 11월 24일 송도국제도시 4공구 6블록에서는 평음이 울렸다. 인천대학교가 신 캠퍼스 기공식을 가진 것이다. 신 캠퍼스는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단지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인천대 송도캠퍼스 면적은 45만8천508㎡로 기존 캠퍼스보다 세 배 가량 넓다. 환경친화형, 인텔리전트형, 사용자 중심형 캠퍼스로 꾸며 중국학, 인천학, 첨단공학, 국제물류 분야

를 특성화하는 대학으로 건설된다. 또한 송도국제도시가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유비쿼터스 캠퍼스로 꾸며진다. 테마별

로 조성되는 캠퍼스 건물은 그 용도에 맞게 특수 장비와 시설이 들어서는 첨단 교육·연구 공간으로 심혈을 기울여 건설되고 있다. 중앙 냉·난방 시설로 쾌적하면서도 첨단 시설을 갖춘 단과대 건물 25개동이 건설되고 교실마다 빔 프로젝터를 달고, 새 컴퓨터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또 13층의 기숙사 2개동에서는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게 될 것이다. 각 대학별 강의동 외에도 실내수영장, 핸드볼 경기가 가능한 체육관, 스포츠센터, 500석 규모의 공연장과 1천석 규모의 대강당 등 복합문화·복지 시설이 들어선다.

송도캠퍼스 건설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시행사로 SK건설 등 13개 업체가 맡아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송도캠퍼스 주변의 국제업무단지에는 세계 유수 기업들의 지사, 컨벤션센터, 대형 백화점, 골프장 등 각종



송도캠퍼스 조감도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돼 인천대 송도캠퍼스는 송도 국제도시 안에서도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인천대는 또 2009년 3월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로 제2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2003년 11월 안상수 시장이 인천대학교의 국립화를 선언한 이래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우리시의 적극적인 지원 끝에 2006년 우리시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국립대학 특수법인이란 국립대 자체로 법인 이사회를 만들어 이사들이 학교를 운영해, 학교의 재정권·인사권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독립되는 형태를 말한다. 국립대 법인화가 되면 2009년부터 10년간 매년 200억원씩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별도로 국립대로서의 보조금을 교육부가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인천대가 국립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우수기업이나 유명 연구소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 캠퍼스와 국립화 특수법인 전환이라는 양 날개를 달게 된 인천대는 인천시민의 대학을 넘어 우리나라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다. ♡



송도캠퍼스 공사현장

“시민의 사랑받는 지역의 거점대학 만들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열린 인천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안경수(토목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가 1위를 차지해 지난 7월 28일 우리시의 임명을 거쳐 오는 9월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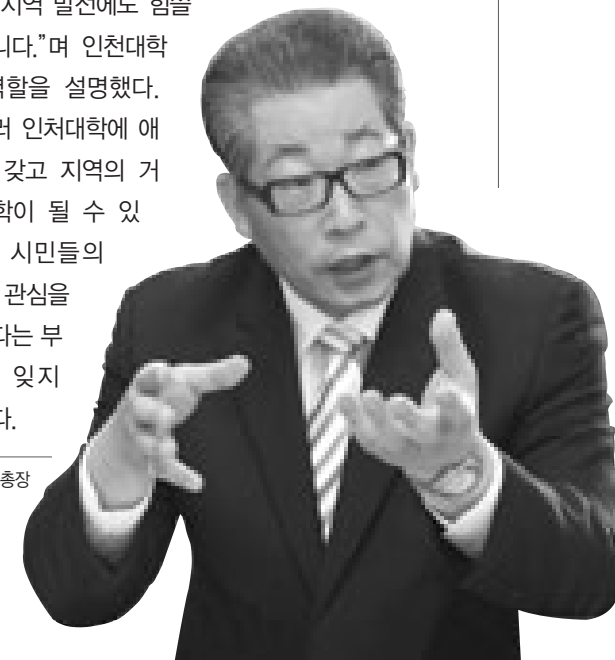
연구실에서 만난 안경수 총장은 “처음으로 내부 교수 중에서 총장이 탄생했다는 것은 대학발전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내부의 요구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며 대학의 발전계획과 운영계획을 세우고, 송도캠퍼스 건립, 국립대 법인화 등 현안 사항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쁜 모습이다.

안 총장은 “인천대는 송도캠퍼스에 이어 제2 캠퍼스가 필요하다. 20만평의 부지가 확보되면 10만평은 대학용도로, 10만평은 산학연구 연계 시스템이 갖춰진 R&D센터를 건립해 산학협력관을 만들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인천대가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발을 맞춰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학과를 늘리고 예술과 문화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련 학과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으로는 대학에 학과별 평가 제도를 도입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2, 3개 특성화 학과를 집중 육성해 인천대를 대표하는 학과로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대학발전을 위해 수익모델을 세우고 발전기금을 조성해 선거 공약대로 500억 규모의 기금을 반드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안 총장은 “인천대학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학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개방형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대학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많이 열어서 대학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대학을 통해 평생교육 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콘덕터(Conductor)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대학이 함께 해결하며, 인천 기업포럼 등을 열어 지역 발전에도 힘을

것입니다.”며 인천대학의 역할을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대학에 애정을 갖고 지역의 거점대학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



건국 60년, 되돌아본 인천의 발자취



광복(光復), '조선 독립 만세!'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인 이육사 선생이 쓴 절창(絶唱) 시에 '광야(曠野)'가 있다.

'지금 눈 나리고 /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 뒤에 /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글 · 조우성 시인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



정부 수립 선포식 광경(중앙청)

광복은 '광야'에서처럼 '천고 뒤'가 아니라, 선생이 독립운
동 혐의로 서울에서 붙잡혀 북경 감옥으로 압송돼 옥사한 다
음 해인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이 땅에 찾아왔다.

그럴밖에 없었다. 일제는 조선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아 승
전보만을 전했고, 인천을 비롯한 각지에서는 심야에 횃불을
켜든 채 싱가포르 함락 축하 시가행진 같은 단말마의 광기를
벌이고 있었다.

1945년, '오키나와'가 함락되자 일제가 패전으로 가고 있다
는 것을 많은 이들이 눈치 채고 있었지만, 스스로 항복하리
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대들의 한결같은 증언
이었다.

인천에서의 광복도 그렇게 왔다. 1945년 8월 15일 12시, 라
디오에서는 일왕의 담화가 흘러나왔지만, 소리가 불분명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역사의
진상은 서서히 밝혀져 갔다.

'나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애관
극장 앞길을 메운 군중은 수백 명이 넘었는데, 이들이 언제
준비하였는지 '조선독립만세'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내동 사거리를 지나 일본인들이 사는 동네
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 해방의 기쁨과 흥분의 열기가 아
직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비극은 시작되고, 자주와 독립이
란 것이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
작했다...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한 불가피한 결
과에 불과했던 것이었으리라... 나 역시 다른 인천시민들과
똑같이 미군이 상륙한다는 소문만 믿고 매일 답동성당의 종
각에 올라가 팔미도 앞바다만 바라보며 태극기를 흔들며 달
뿐이었다.'(임명방 · '인중 시절과 태극기에 대한 기억' 황해문화 1994
년 겨울호)

미군정(美軍政)과 정부 수립

그해 9월 8일 인천에 미군이 진주했다. 그들에 의해 군정이
실시되자, 일인과 한인 간의 일촉즉발의 상황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 며칠 뒤 군정관(軍政官)에 스틸맨이
임명되었다. 10월 7일 국문 신문 대중일보를 창간하였고, 10
월 16일 창영국민학교에서는 최초로 민주적 방식의 선거에
의해 임홍재 씨를 초대 시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 11월 1일
인천경찰서장 김윤복 씨와 법원 인천지청장 방준경 씨가 일



휴전 반대 인천시민의 데모(중구 중앙동)

본인으로부터 사무 인계를 받았고, 시의원 32명을 새로 임명
하였다. 12월 23일에는 76개의 행정 구역 단위인 '정명(町
名)'을 '동명(洞名)'으로 바꾸어 발표하는 등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전 작업을 숨 가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5년간의 신탁통치가 결정되
자, 좌익과 우익은 찬반의 대결 국면으로 빠져 들고, 사회의
혼란은 극에 달하였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1년
후인 1947년 5월 2차 회의가 속개됐으나 역시 타결이 안 되
자 한국의 독립 문제는 국제연합(UN)에 상정되었다.

그해 UN 총회는 UN 감시 하의 총선거 실시, 정부 수립 후
미소 양군 철수, 유엔한국위원단 설치안을 통과시켰고,
1948년 유엔 소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에서 만이라도 독
립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로써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는 끝내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역사적인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월 31일 국회가 개회되었으며 국회
는 곧 헌법 제정에 착수해 7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공포하였다.

8월 15일, 마침내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날 인천공설
운동장에서는 26여만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표양문 시장
의 식사, 박상훈 의원의 독립 약사 보고, 각 애국단체의 메
시지 낭독과 만세 삼창 등으로 정부 수립을 축하하였고, 식
이 끝나자 시민들은 농악대와 가장행렬을 앞세워 흥겹게 온
시가를 누볐다.



위_ 폐허가 된 시가지(애관극장 앞. 담동성당이 보인다.)
아래_ 인천상륙작전 시가지가 불 타고 있다.

6·25전쟁과 인구의 재편

그러나 그토록 열망했던 독립한 내 나라를 세웠다는 가슴 벅찬 기쁨은 채 2년이 가지 않았다. 지역 사회는 뒤숭숭하였다. 인천시 공무원 19명의 남로당 푸락치 사건, 대동청년단 동구지단 수류탄 투척, 좌익 흑죽야산대(黑竹野山隊) 적발, 남로당 인천시당책 검거 등 비상한 시국이 이어지더니 결국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이어졌다.

이 동족상잔의 6·25는 민주·공산 양대 진영의 대리전적 성격과 함께 내쟁적(內爭的) 요소를 동시에 지닌 전쟁으로 개전 9일 만인 7월 3일 밤 11시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인천 시내로 진입하였다.

이후, 피아간의 참상은 필설로는 형용키 어려운 참절비절 그 자체였다. 해광사에 설치된 정치보위부를 정점으로 한 적 치하의 3개월, 포탄이 뜨거운 우박처럼 월미도와 시가지를 강타했던 인천상륙작전, 엄동설한 속에 피란길에 나섰던 1·4후퇴, 제2차 인천상륙과 재수복, 부평 지역 반공포로 석방과 휴전에 이르는 과정은 아비규환적 참상이었다.

수복이 되자 피란 갔던 시민들은 속속 귀환하였다. 그들은 주택을 비롯한 공공기관, 산업 시설 등이 모두 파괴된 실상에 망연자실하였다. 그와 함께 공산정권을 피해 월남한 동포들이 대거 이주해 오기 시작한 것도 커다란 사회 문제였다. 당장 그들의 구호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었다.

1953년도 인천의 총인구 25만6천751명 중 피란민은 7만5천376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향후 인천의 도시적 성격을 형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은 있었지만, 이처럼 일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인천은 말 그대로 ‘인천합중시(仁川合衆市)’로서 서서히 변모해 갔다. 제 꿈을 펼치고자 인천으로 이주해 온 이들은 누구나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전후 건설 사업에 동참할 수 있었다. 적어도 인천에서만은 지방색(地方色)을 따지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벌써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오늘의 인천을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전재(戰災) 복구와 공업화

전쟁의 피해는 실로 엄청났다. 막대한 인명 살상은 물론 주택, 학교, 관공서, 금융기관, 의료, 수산 시설 등의 피해와 함께 강철, 방직, 도자기, 유지공업 같은 산업 시설의 피해도 심각했다.

전후의 재건은 고행의 연속이었다. 각급 기관. 시민이 모두 나섰지만, 그 중 한미친선위원회의 활동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도로 보수, 교통정리, 교량 건설, 각급 학교 신축 및 증축, 하수구 개량, 주택 건설을 비롯한 1954년도의 공설운동장 보수 공사 등은 기억에 남는 전재(戰災) 복구 사업이었다.

파괴된 공장의 복구도 착착 진행되었다. 대한중공업(송현동)을 비롯한 한국강업(송현동), 조선철강(학익동), 대동철강(만석동), 인천신철 등은 전국적인



전후 경제 부흥의 상징이었던 인천판유리공장 준공식 광경



국내 최초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테이프를 끊고 있다



신도시 조성 공사 기공식

제강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고, 한영알미늄(송의동) 등 군소 60여개의 공장이 들어서서 식기, 알미늄 판 등을 생산해 냈다.

한국판유리공장(유리), 애경유지공업(비누), 대한성냥공업사(성냥), 중앙도자기공업(요업), 인천고무공업사(고무), 인천전기(전압기), 조선기계제작소(조선), 동양방직·흥한방직(섬유), 대한제분·삼화제분(제분), 고려·삼화정미소(정미업), 인천주정·와룡주정(양조), 경인합동음료(사이다) 등도 생산을 재개하였다.

경제 발전기와 인천 부상

그러나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력은 4·19와 5·16을 불러 왔다. 혁명 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인천 경제의 비약적인 발돋움을 하게 한 토양이 되었다. 경인고속도로 개통, 경인선 복선 시설, 인천항 제2독(Dock) 축조, 인천기계공단, 인천비철금속공단,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 등과 인천은행(경기은행 전신) 설립 등은 눈부신 발전의 모습이었다.

196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은 고도성장을 앞당겨 실현케 하였다. 이 시기의 노력들은 오늘날의 중화학공업시대를 열게 하였고, 우리가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부상케 한 직접적 동인이었다. 인천항을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전면 ‘독’(Dock)화와 전철 개통 등은 지역 경제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1981년 7월 1일의 직할시 승격은 도시적 변모를 크게 가져오게 한 계기가 되었다. 시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청사를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하였고, 그와 동시에 21세기를 대비한 항구적인 인천의 발전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 비전의 핵심은 인천을 ‘동북아의 중핵 도시’로 키워 나가자는 것이었다. 신도시 건설은 땅을 재생산할 수 있는 인천의 천혜적 이점을 살린 사상 초유의 대역사(大役事)였고, 국제적 환경 변화와 인천항의 항계 확장 등은 물류의 거점으로서 인천항을 거듭 태어나게 했으며, 아시아의 허브를 목표로 건설한 인천국제공항은 우주 항공 시대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세계를 향해 하늘의 문을 연 ‘진정한 개항(開港)’이었던 것이다.

21세기, 동북아의 허브 도시로의 비상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해불양수(海不讓水)적 포용성은 건국 이래 인천이 지녀온 독특한 정체성이요, 그를 바탕으로 한 역동성은 오늘과 같이 인천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한 원동력이었다.

신미·병인양요, 운양호사건, 제물포해전, 인천상륙작전 등 불행한 전쟁터로 세계에 알려졌던 것이 지나간 역사였다면, 그 가시밭길 속을 헤쳐나와 세계가 팔목상대하는 ‘명품도시’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오늘의 역사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리 없다.’던 코리아요, 역사의 전환기마다 전쟁의 참화로 피눈물 나는 비극을 겪어온 인천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역 사회적 성취를 우리들은 마침내 이루어 낸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의 불협화음은 반드시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지만, 우리 고장 인천이 건국 60년 만에 육해공(陸海空)에서 천지개벽할 대기운(大機運)을 맞이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모두 합심해 이 천운의 기회를 살려 풍성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후손들에게 기필코 물려주도록 노력을 다해야겠다. 이것이 건국 60년을 맞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 🌸



경기은행의 전신인 인천은행의 창립

건국의 큰 어른
백범 김구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내 소원은 천재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민국의 독립이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이 하신 말입니다.

오늘은 김구 선생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백범은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았다.

1893년 동학에 심취했던 그는 동학에 입도한 뒤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하였고

청년 김구

1896년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선인 부장으로 숨어 있던 일본인 장교를 죽이기도 하였다.

나라의 국모를 죽인 복수다!

일제에 체포된 백범은 훗날 제2의 고향이 된 인천의 형무소에 수감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만

감히 대일본제국의 장교를 죽이다니!

고종황제의 노력으로 사형 전날 가까스로 집행이 보류되었고 훗날 탈옥을 하게 된다.

장래가 유망한 인재를 죽게 해선 안되지~!

탈옥 후 1900년 강화도에서 3개월간 훈장일을 한 것을 계기로

하늘 천 따지~

하늘 천 따지~

고향인 황해도에 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봉양 학교

그후 을사조약 무효투쟁, 신민회 활동 등 많은 독립 활동을 하였고

을사조약 무효투쟁

신민회

1919년 3·1운동 때는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년 김구

또 1931년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 1932년 윤봉길의사의 도시락 폭탄 투척을 지휘하는 등

윤봉길 의사

헉~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는 1945년 광복 후 감격스런 귀국을 하게 되었다.

아... 꿈에 그리던 내 조국...

그후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던 그는

신탁 통치 반대!

나라를 둘로 쪼갤 순 없다!

1949년 안두희에게 암살을 당하며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친다.

탕!

윽!!

오늘날 해마다 그가 피격된 6월 25일이면 그의 제2의 고향인 인천의 인천대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백범광장에서 그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린다.

김구 선생은 가냘프지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의 애국심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휴가철 공공의 적 손 자주 씻어 예방



장마철이 끝나고 더위를 피해 휴가를 준비할 무렵 눈이 빨개지면서 눈이 부시고 눈곱이 끼어 안과를 찾은 후 ‘눈병’으로 진단 받고 통째로 휴가를 날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마련이다. 이처럼 바이러스 번식에 최적 조건인 고온다습한 계절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전염성 눈병으로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아폴로눈병)이 있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이며 약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보통 한쪽 눈에 증상이 먼저 나타나며 며칠 안에 반대편의 눈도 같은 증상을 보인다. 먼저 발병한 눈의 증상이 심한 편이며 때로는 한쪽 눈에만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발병 초기에는 갑자기 눈꺼풀이 붓고 눈이 빨개지며 티가 들어간 것처럼 불편하고 눈물과 눈곱이 심하게 나온다.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셔 눈을 잘 뜨지 못하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간혹 귀 앞이나 턱밑의 림파절이 부어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 어린아이들의 경우 발열, 기침, 오심, 구토, 설사 그리고 근육통과 같은 감기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앓았다거나 눈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의 접촉, 수영장, 목욕탕, 해변 등 공공장소에 노출된 병력 등과 한쪽 눈부터 시작되는 위에 열거한 증상 등을 통해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 대부분의 증상은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보통 2~3주에 걸쳐 완전히 회복된다. 하지만 면역반응에 의해 각막 상피 아래 점상의 혼탁이 생기는 경우 약간의 시력저하와 눈부심이 지속되며 완전한 회복까지 수주에서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유행성각결막염과 증상과 경과가 비슷하지만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인 급성출혈성결막염은 흔히 ‘아폴로눈병’이라고 부른다.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하게 된 1969년에 유행했다해

서 이렇게 불려지며 보통 유행성각결막염을 ‘아폴로눈병’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나 소견은 유행성각결막염과 비슷하지만 2~3일간의 짧은 잠복기를 가지고 특징적인 결막하 출혈을 동반하며 1~2주의 짧은 경과를 갖는 점 등으로 유행성각결막염과 구분된다.

이 두 질환은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질환이지만 아직까지도 원인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치료의 주목적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전파와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얼음찜질은 부종과 통증을 경감시키고 색안경은 눈부심을 줄일 수 있다. 안대는 국소 온도를 높여 바이러스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통은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아도 감기가 나가는 것처럼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되나 안과에서는 보통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한다.

감염이 되면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하여도 오랜 경과를 거쳐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전염성 눈병은 반드시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따라서 눈병에 걸린 환자는 눈을 만지는 것을 되도록 삼가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세면도구, 수건, 베개, 침구 등은 따로 쓰도록 하며 수영장, 목욕탕 등 전파의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는 피한다. 약병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약을 넣을 때 눈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같은 약을 여러 사람이 돌려쓰지 않도록 하고 쓰다 남은 약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다. 요즘과 같은 유행철에는 눈을 만지지 않고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글 · 최혁진 인천광역시의료원 안과

내 얼굴 먹지마~
지난 겨울 남이섬에 놀러갔다가 조금 특별한 조각상을 보고 사진에 담아왔어요. 조각상 얼굴이 너무 커서 입속으로 사람이 빨려들어갈 것만 같아요. 모두 폐품을 이용해 만들어졌다고 하니 더 신기했어요.
선지은 | 부평구 삼산동



빨리 올라오너라

을왕리로 1박 2일 가족여행을 갔다. 애들 어렸을 땐 친목회가족과 캠핑을 왔던 곳이다. 엄청 발전하고 음식점도 많았지만 물이 빠지고 을왕리에서 왕산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바위산은 그대로다. 내가 제일 빨리 바위를 타고 딸 내외, 그뒤로 아들 내외가 올라온다. 서로 제식구를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황인원 | 부평구 십정2동



내 동생은 어디에?

89년 8월 1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간 대부도에서 엄마와 찍은 사진이랍니다. 엄마와 둘이 찍은 사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훌쩍 커버린 남동생도 같이 있었다고 해요. 내동생은 어디 있을까요?

이유나 | 부평구 십정2동



아~ 이래서 자동차가 나왔구나~

놀이동산에서 소달구지 체험을 할 때입니다. 옛날에는 소달구지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짐을 옮기기도 했다는 설명을 들은 후 딸 아이의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아~ 냄새가 이렇게 나니까 자동차를 만들었구나~”

이광기 | 충남 천안시



아, 저팔계

초등학교 5학년인 큰 아이 현장체험학습차 제주도에 가족 모두가 다녀왔다. 테마파크에서 삼장법사를 수행하고 가는 저팔계를 보고 갓 네 살된 둘째 아이가 “우아~ 아빠다, 아빠”라며 손가락으로 가리킨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과 주변의 많은 여행객들은 폭소를 자아냈다.

곽창영 | 연수구 송도동



증조 외할머니

지난 5월 백일이된 다은이와 증조 외할머니의 한 컷. 지금 몸이 안좋으셔서 힘든데도 증손주를 안아보시곤 좋아라 하신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오영미 | 서구 가좌4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피서지에서 생긴 일

이제 정년퇴직을 하니 시간관리가 말처럼 쉽지 않다. 집사람과 여행을 떠났다. 추억을 더듬으면서… 족히 20년은 지난 것 같다. 원주 간현 유원지 두몽폭포에 갔었다. 폭포는 그냥 작고 아기자기했다. 그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막상 기억을 되새기다 보니 얼굴이 뜨거워졌다.

당시에도 점통터위로 유원지는 북적거렸다. 그러나 두몽폭포는 조금 한적하고 여유로웠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옷을 벗어던지고 떨어지는 폭포수에 온 몸을 적시면서 즐거워했다. 나도 그만 찌는 듯한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팬티바람에 털썩 폭포 한가운데로 몸을 던졌다. 떨어지는 폭포수와 싸움이라도 하듯이 손을 흔들면서 피서를 즐겼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마구 키득거리면서 웃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한참 어리둥절하면서 내 몸을 살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팬티가 반쯤 내려가 있었다. 수영복이 아니고 조금은 낡은, 고무줄이 느슨해진 팬티가 화근이었던 것이다. 하여튼 알몸 쇼를 연출할 뻔 했다. 황급히 뛰어나오긴 했지만 한동안은 그 때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다시 오고 싶지 않은 피서지였다. 그러나 세월이 약이다. 역시 추억은 아름다운가 보다. 이제 반백의 노인이 되어 와보니 더욱 즐겁기만 하다. 옷을 벗고 그 당시를 재현해 보고 싶었다. 오늘은 질긴 고무줄로 만든 팬티를 입고 왔는데… 그러나 객기를 부리기에는 나이가 너무 무거워졌다. 세월이 너무 흐른 것이다. 두몽폭포를 뒤로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세월이 덧없음을 아쉬워하면서…

권경옥_연수구 연수1동

즐거운 여름휴가

휴가를 맞아 우리 가족은 특별한 계획 없이 마을 근처에 있는 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갔다. 처음엔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삼겹살에 고추장, 상추, 마늘, 찬거리를 준비하고 오빠의 차를 끌고 출발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저수지에 도착해서 싸운 찬거리를 트렁크에서 꺼내는 사이에 비가 오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비가 와서 무슨 낚시를 하겠냐고 걱정했다. 그래도 하늘이 우릴 도왔는지 비는 내리다가 멈추고 또 내리다가 멈추고 했다. 계속 오는 비가 아니라 지나가는 비인가 보다 하며 낚시질을 했다. 남자들은 낚시



질을 하고 여자들은 싸 온 찬거리를 꺼내 놓고 삼겹살을 구우며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참 즐거운데 또 비가 내리는 것이었다. 그만 삼겹살이 잘 구워지지 않았다. 그래도 밖에 나와서 즐기는 삼겹살 맛 이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두배는 맛있었다. 결국엔 삼겹살 파티만 한 셈인 여름휴가였지만 이것도 즐거운 추억의 한 장으로 여기며 내년에는 또 무엇으로 즐거운 여름휴가를 장식할지 기대해 본다.

이민정_강화군 송해면

부부란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야기는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도 몹시 더운 여름날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동생내외 집으로 딸 셋을 데리고 피서를 떠났다. 밤늦게 친정식구들이 차례차례 도착했다. 그리고 다음 날, 무더위를 이겨보려고 다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닷가로 향했다. 아이들은 튜브를 끼고 앞에서 놀고, 동생과 난 커다란 바람보트에 몸을 싣고 큰 딸이 보트를 튜브삼아 반쯤 몸을 담그고 발로 휘저어가며 신나게 한여름의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엄마’ 랑 ‘이모’ 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가 탄 보트가 위험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놀란 나와 동생은 몸을 반쯤 담그고 있는 딸을 함께 끌어올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 수영을 해서 우리를 구하러 와서 천신만고 끝에 육지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남편. 너무 무섭고 힘든 탓에 우릴 구해준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친정식구들이 말해주서 알았다. 내가 위험할 때, 무서울 때 항상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남편.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그 후로 바닷가는 그냥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 그저 보기만 할 뿐…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역시 부부란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동무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란 것을 이제서 깨닫는다. 이제 결혼한 딸도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하겠지? 올 여름엔 결혼한 딸들과 함께 피서를 가볼까나…

김옥분_남구 학익2동

빙글 빙글

3년 전, H대형마트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과자를 샀다. 운이 정말 좋았다. ‘놀이공원 가족 무료이용권’ 이 당첨되어 집으로 배송되어 왔다. 살다가 이런 행운도 있구나 싶어 우리 가족



들은 집이 떠나갈 듯 환호를 질렀다. 무박으로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오려고 새벽부터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했다. 우리는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간단하게 김밥만 먹기로 했다. 진짜 맛있는 다른 음식들은 놀이기구를 많이 타고나면 허기질 것 같아 나중에 먹으려고 일부러 남겼다. 흠어지면 모이기 힘들어지고 시간 낭비할 것 같아 모두 한 가지씩 함께 타기로 의견을 일치했다. 그때, 가족 중 누군가가 “아, 저거 정말 재밌겠다!”하는 한 마디에 우리는 “오케~이!”하면서 의심 없이 우르르 몰려가서 다함께 올라탔다. 무료니까~! 기구가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아차!” 싶었다. 점심을 먹고 바로 뽕뽕이를 탔던 것이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3분이 30분 같았다. 기구에서 내리자마자 가족들이 다 쓰러졌다. 이때 또 누군가 외쳤다. “어지러



위도 죽는 거 아니니까 빨리 힘냅시다! 오후 시간동안 모든 기구를 다 타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사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구요!” 우린 모두 일어섰다. 다음으로 탈 기구로 이끌려 갔다. 이번엔 도대체 또 누가 이끌었는지 타고 보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또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그 다음 기구도 이끌려 탈수밖에 없었는데 점심을 먹자마자 바로 기구 세 개를 그것도 뽕뽕이 종류를 연속으로 탔으니 우리 가족 모두는 널 부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놀이기구를 처음 타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단다. 모두 다 “놀이 기구는 이제 그만!”하고 외쳤다. 우리는 놀이공원 중간도 못가고 입구 부근에서 다들 산 누에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김밥을 먹고 뜨끈한 국물을 안 마셔서 체한 것 같으며 뜨거운 국물을 마시러 가자고 누가 제안했다. 우린 마지막 기운을 내어 모두 식당을 찾으러 일어섰다. 마침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었더니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우린 너무나 지쳐있었기에 재차 확인하지도, 의심도 하지 않고 모두 리프트를 타고 한 참을 올라갔다. 그곳 안전요원에게 확인 차 물어보니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내려갔더니 밑에 있는 직원은 왜 내려 왔냐며 올라가야 식당이 있다고 했다. 또 다시 올라갔다. 우린 오직 뜨거운 국물을 마셔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줄잡아도 100여미터 남짓한 거리의 리프트를 왕복 여섯 번을 연속으로 탔다. 뜨거운 국물의 일념을 포기했을 때, 그때서야 우린 리프트에서 내릴 수 있었다. 너무 지쳐서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다. 집에까지 같이 와준 진짜 맛있는 다른 음식들은 삼복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다 상해버렸다. 희한한 악몽 같

은 하루를 보내고 한 달여 동안 후유증에 시달렸다.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쿵쿵거리고, 소파에 앉아 눈을 감으면 소파가 빙빙 도는 것이었다. 뽕뽕이 후유증, 너무 무서워~!

김진희_서구 가좌동

몽계구름 흘러 가는 곳

해마다 우리가족의 피서지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 시골집이다. 가까운 곳에 적당히 피서객이 몰려오는 해수욕장도 있으니,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오기도 부담이 없다. 몽계구름 그림 그리며 흘러가는 파아란 하늘 아래 온통 짙은 초록 녹음우거진 산과들, 논, 밭가운데 그림같은 초록잔디마당 시골집에서 3일간의 푸근한 쉼을 누리고 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점점 불덩이가 되어가는 도시의 열대야를 생각하면 그냥 눌러앉아 살아버리고 싶은 무릉도원이다. 모기와와의 전쟁은 여전하지만, 남편은 벌써부터 퇴직하면 내려와 살 계획을 구상중이다. 팔순을 넘기신 어머니가 텃밭에 농사지어 거두신 노오란 참외며 감자를 써서 내놓고 툇마루에 둘러앉아 모기 쫓으며 도란거리는 옛날얘기는 밤이 깊도록 끝이 없다. 특히 어머니의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 예전에 했던 “사랑이 뭘길래”라는 TV 연속극 제목을 “사랑이 뭘이 간디”

라고 하신 말씀에 아이들이 자지러졌다. 피서철이면 극성을 부리는 바가지요금에 신경 쓸 일도, 오고가는 길 막히는 교통난도 걱정없다. 아직도 집 뒤 대나무 숲에서 울어대던 매미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땀, 땀, 땀, 땀, 매~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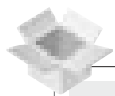
김공희_남구 용현5동

다음달 테마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 (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8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8302)



info box

제3회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공모전 열립니다

‘재활용의 생활화가 생명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제3회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공모전이 열립니다.

- 공모기간 : 8월 18일(월)~9월 5일(금)
- 공모분야 : 초등학교 이상 누구나
- 작품주제 : 자유(재활용품을 이용한 1인 1점)
- 작품규격 : 가로·세로 각 1m x 높이 1.5m 이내, 중량 10kg 이하
- 접수처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실(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27번지 한국씨티은행 빌딩 8층 우편 405-711)
- 접수제한 : 타 공모전에 입상하였거나 전시한 작품, 폭발·인화성 등 안전에 위험이 있는 작품 제외
- 입상작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하여 결정(선정)
- 입상작 선정기준 : 폐품이용도 30점, 실용성 40점, 창의성 20점, 예술성 10점
- 입상작 상장 수여 : 인천광역시장상(대상 1, 금상 6, 은상 9, 동상 30, 장려상 60)
- 입상작 종류 및 시상금(총106명)

부문별	지구살림상 (대상·1명)	으뜸생각상 (금상·각2명)	장한숨씨상 (은상·각3명)	기특상 (동상·각10명)	열심상 (장려상·각20명)
초등부		30만원	10만원	5만원	3만원(도서상품권)
중·고등부	100만원	40만원	20만원	10만원	3만원(도서상품권)
일 반 부		60만원	40만원	20만원	3만원(도서상품권)

※ 미 입상 작품 중 200명 한정(접수순) 도서상품권(5천원) 제공 및 격려

- 입상작 발표 : 9월 12일(금) 오후 2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홈페이지(www.iagenda21.or.kr.) 게재
- 시상식 : 9월 27일(토) 오후 2시 예정 - 장소 추후공지
- 기타문의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 433-2122, Fax 433-2133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송도국제도시캠퍼스에 위치한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자격증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미술교육과정, 어린이교육과정,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교육과정 등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과정명
 - 자격증교육과정 : 아동미술실기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 속독지도사, 논술지도사
 - 특별교육과정 : 미술치료(1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서양화, 사진영상, 오감으로 즐기는 디지털카메라 세상, 플라워디자인과 전례꽃꽂이, 포토샵을 이용한 디지털앨범 제작하기

- 미술교육과정 : 맑고 투명한 수채화의 세계(김대정), 윤주철의 수채화 입문, 누구나 쉽게 그리는 유화(고진오), 유화의 모든 것(전운영), 안성용의 유화세계로의 초대, 나를 표현한다. 박재웅 신(新)경향 유화교실, 그림의 시작과 완성. 소묘(박재웅), 김재원 교수와 함께하는 서양미술 감상, 성화(聖畵), 신비의 美(미) - 이콘(김형부), 강상중의 현대미술 창작교실
- 어린이 교육과정 : EQ 쏘-옥! IQ 쏙! 유아미술놀이, 재미있는 상상력! 기발한 창의력! 어린이 미술교실, 박선민의 어린이 창작아트 스튜디오, 논리적인 자기표현. 어린이 논술교실
-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교육과정 : 부모교육훈련 프로그램, 관계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열등감& 분노 조절 프로그램

- 모집기간 : 8월 29(금)까지
- 개강일 : 9월 1일(월) 해당수업요일
- 장소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송도국제도시캠퍼스)
- 문의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무과 ☎ 438-8131, www.iccu.ac.kr/life

월미공원에서 놀면서 배우자

월미공원 한국전통정원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기간 : 7월 26일(토)~8월 30일(토) 6회(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월미공원(한국전통정원)
- 대상 : 공원이용객 가족단위(초등학생과 가족) 선착순
- 체험내용 : 다도체험 및 예절교육, 한지공예, 짚풀공예, 대나무공예 등(체험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 무료
- 문의 : 서부공원사업소 운영과 ☎ 440-4633

국비무료교육 받으세요

명진디지털직업전문학교에는 노동부 주관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합니다.

- 실업자 훈련 대상 :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퇴직한 분 또는 고용 보험 미적용자
- 교육특전
 - 인천시, 노동부, 학교의 전산망을 통한 취업 및 창업

- 매월 훈련수당 11만원 지급, 노동부 인정 수료증 수여

	교육과정	교육기간 및 시간
실업자교육	개인용컴퓨터수리반	9월 22일~2009년 3월 20일 (6개월간, 오전 9시 50분~오후 4시 20분)
	전산세무회계반	9월 22일~2009년 3월 20일 (6개월간, 오전 9시 50분~오후 4시 20분)
재직자교육	엑셀/파워포인트반	매월초, 중순 개강(화,목) / (월,수,금)반
	회계첫걸음, 전산회계 2급 및 회계기초 (더존실무)	오후 7시 20분~오후 10시 10분 ※환급절차 - 사업주위탁 : 회사가 교육비부담, 수료후 회사환급 - 수강지원금 : 개인이 교육비부담, 수료후 개인환급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 2급반(더존실무)	
	PC 정비 실무	

- 문의 : 명진디지털직업전문학교 ☎ 882-3908, Fax 882-4216

근로자학자금대부합니다

고용보험가입자인 재직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 대부대상 : 고용보험가입 재직근로자로서 폴리텍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대학원 석, 박사포함)
-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
- 대부조건

구 분	학자금 대부		훈련비 대부
	신용대부	일반대부	일반대부
금 리	연 1%(보증요율 연 0.3%)	연 1.5%	연 1.5%
상환기간	2년거치 2년(4년제는 4년)상환		1년거치 1년상환
상환방법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이자상환,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균분상환		

- 신청접수기간 : 8월 1일(금)~8월 20일(수)(최종일 오후 6시 이후 신청접수 불가)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 대부우선순위 해당자서류 각 1부(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공지사항 참조)
- 지원신청 및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 820-8607 인천 남동구 고잔동 625-1 황재복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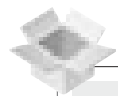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풋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공개하고 식당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풋말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대상음식점	표시방법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메뉴판과 게시판(필수) 풋말 등 추가 표시(선택)
1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메뉴판 또는 게시판(택1 필수) 풋말 등 추가 표시(선택)
집단급식소(위탁급식 영업소 포함)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 공개(쇠고기) 게시판 또는 풋말에 표시(택1 필수)

쇠고기 및 쌀 원산지 표시방법

- 예시 1 쇠고기(가공품 포함)조리 음식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갈비탕(국내산 한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국내산 한우와 미국산 쇠육)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해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 예시 2 쌀(밥류)조리 음식
 - 조리한 밥류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를 표시
 - 국내산 : 밥 쌀(국내산), 김밥 쌀(국내산)
 - 수입산 : 밥 쌀(중국산), 김밥 쌀(미국산)
 - 원산지가 다른 쌀을 혼합한 경우 : 원산지가 다른 쌀 혼합밥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예시 3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할 때 일괄표시 가능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문의 : 시 농정과 ☎ 440-2973





info box

인천의료원 무료검진합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진기간 : 8월 12일(화)~14일(목) 3일간
- 검진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내과 2)
- 검진대상 : 인천시민에 한함
 - ※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 간기능 검사
- 검사항목 : GOT, GPT, GTP(혈액 검사)
- 검진인원 : 100명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내과 ☎ 580-6024,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 580-6652

화수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 참가 안내

	프로그램 소개			
	주5일제수업 대비프로그램	청소년 인증프로그램	2008 Youth Day	청소년 자원봉사
대상	초등학생 1~4학년	초등학생 20명	청소년 및 지역주민	초등학생 20명
내용	박물관 관람, 과학체험, 창경궁 견학, 과학동영상 시청	어울림한마당, 웃음치료교육, 웃음치료사 체험	주변마당, 김밥제작	청소년금연구육, 흡연 모의실험, 선전물 제작 및 거리캠페인
활동 일시	8월 23일 9:00~14:00	9월 6일(토) 14:00~17:00	8월 24일	8월 2일, 9일
접수 일시	7월 24일~ 8월 12일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선착순)	7월 24일~ 8월 25일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 (선착순)	당일접수 가능	7월 15일 ~ 8월 1일
참가비	8,000원 (교통비, 입장료, 간식비 포함)	무료	무료	2000원
비고	활동장소: 서울시 종로구 국립서울 과학관, 창경궁	활동장소: 화수청소년 문화의집	참가비 환불 불가	참가비 환불 불가

- 문의 : 화수청소년문화의집 ☎ 762-7942
www.dreamyouth.kr

웨딩촬영, 문학경기장에서 하세요

문학경기장에서는 한·일 월드컵 16강의 성지인 문학경기장 내 천연잔디구장을 개방하여 야외 웨딩촬영 장소를 제공합니다.



- 운영기간 : 7월 14일(월)~10월 31일(금)
- 운영시간 : 오전 10시, 오후 12시(2시간씩 운영)
- 운영(촬영)장소 : 문학경기장 내 천연잔디 포토존, 히딩크 코치석 전광판 배경, 박지성 스포인트
- 이용요금
 - 사진촬영 : 40,000/2시간(20명 이내)/천연잔디 보호차원 인원제한
 - 전광판 표출 : 240,000원(동영상 및 사진 표출 가능)
- 운영제한 : 프로축구경기, 인천광역시 행사 및 각종 이벤트 등 촬영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운영팀으로 날짜 문의 후 접수.
- 문의 : 문학경기장사업단 ☎ 456-3020

인천대공원 자연학교

인천대공원에서는 방학을 맞아 자연학교를 운영합니다.

기간	매미 자연교실	딱따구리 자연교실	달맞이 자연교실
7/29 ~ 8/29	1기 : 7/29~8/1, 6~7세 2기 : 8/5~8/8, 8~9세 3기 : 8/12~8/15, 10~11세 4기 : 8/19~8/22, 12~13세 5기 : 8/26~8/29, 14~17세 참여인원 : 기수 별 30명	날짜 : 8월 중, 매주 화·목 시간 : 15:00~16:00 참여인원 : 화요일 7~9세 30명, 목요일 10~12세 30명	날짜 : 8/1, 8/8, 8/15, 8/22, 8/29 시간 : 20:00~21:00 참여인원 : 10가족

- 참가방법 : 일주일 전에 전화로 사전예약 접수
- 문의 : 시 동부공원사업소 ☎ 440-4956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보조인 모집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역량 있는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 활동자격 :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 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단, 가사·간병도우미 등 유사서비스 제공 활동 경력 1년 이상인 경력자는 기본교육 60시간 면제)
-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음.
 - ①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인
 - ② 서비스대상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가족구성원,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형제·자매
 - ③ 제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급여를 전액 또는 1/2 이상 지원받는 직원
- 활동시간 : 지원대상자가 '인정조사표'에 의해 받은 인정시간(월 30~90시간)
- ※ 독거 및 특례지원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인 경우 최대 30시간 추가활동
- 활동비 : 1시간당 8,000원(수수료 25%,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4대보험, 퇴직금 포함)
- 신청 및 접수 : 전화신청 후 방문접수·면접
- 활동내용 :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됨.

신변처리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낭독보조, 대필보조 등
이동의 보조	안내도우미·대리운전(시각장애인), 등·하교지원, 출·퇴근, 야외·문화활동

- 문의 :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833-3051, 6903(지역복지팀 사회복지사 조성용, 이대열)

시정 소식 영어방송으로 들으세요

우리시에서는 외국인이 살기 편한 도시풍토 조성을 위한 시정소식 라디오 영어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라디오 들으면 시정소식도 알고, 영어도 배우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세요.

- 방송개시일 : 8월 1일(금)부터
- 방송사 : 경인방송 Sunny FM 90.7MHz
- 방송형태 : 한국어, 영어
- 프로그램

1. Fly Incheon News
 - 시간 :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5시
 - 내용 :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시정소식, 국내·외 뉴스 등을 영어로 실시간 방송

2. 사라한의 'Enjoy English'
 - 방송시간 : 매일 오전 6시~7시
 - 내용 : 인천의 문화, 시정소식, 사건사고 등 인천관련 뉴스의 일부를 발췌하여 시민 생활영어 소개 및 현장 즉석 시민 인터뷰 실시 등 시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방송
- 다시듣기 : www.sunnyfm.co.kr
- 문의 : 경인방송 Sunny FM ☎ 830-1000

2008인천국제악기전시회 Incheon Music Korea 2008

- 일시 : 9월 4일(목)~9월 6일(토)
- 장소 : 송도컨벤시아
- 참가업체 : 130개사 300부스
- 부대행사 : 세미나, 뮤직코리아 콘테스트, 네트워킹의 밤, 초청 공연 등
- 문의 : 시 기업지원과 ☎ 440-2790



농업경영체 등록제 실시!

농업경영체별 농사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입니다.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집 농사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 등록 내용은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입니다.
- 등록절차는 이렇습니다.

①예비신청 지자체-농업인 → ②전산처리 농관원 → ③본신청 농업인·농업법인 → ④전산등록 통지 농관원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한 「예비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농관원으로 접수 처리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시면

- 농림사업의 신청이 훨씬 쉽고 편해집니다.
-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주관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출정소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안내

A great place to go to relax and enjoy the sea



At the seafood market

Customer : What can you recommend today?

Vendor : We have some fresh oysters that are excellent.

Customer : Oh, actually I prefer fish. What else have you got?

Vendor : Well, we also have some flatfish.

Customer : Is it fresh?

Vendor : Yes, it was just caught this morning.

Customer : Ok, sounds good. I'll take 2 kilos.

Vendor : That will be \$10.

Customer : Here you go. Thank you very much!

Vendor : Have a nice day!

수산 시장에서

손 님 : 오늘은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상 인 : 저희 가게에는 질 좋은 신선한 굴이 있습니다.

손 님 : 사실 저는 생선을 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상 인 : 네, 저희 가게에는 광어도 있습니다.

손 님 : 광어가 신선한가요?

상 인 : 예, 오늘 아침에 막 잡아왔습니다.

손 님 : 네, 좋네요. 2 킬로그램 주세요.

상 인 : 만원입니다.

손 님 :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 인 : 좋은 하루 되세요.



글 · Sonia Rapaport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 강사

Yeongjong Island is best known f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Yeongjong Island is located in the West Sea and is part of the city of Incheon. It is part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and will soon be connected to Songdo, the other IFEZ area, via the Incheon Bridge.

Aside from its increasing economic and commercial importance, Yeongjong Island is famous for its fresh seafood which can be bought at the seafood market or enjoyed at a number of beachfront restaurants. On the west side of the island is Eulwangni Beach, which is a 30-minute ride by car or city bus from the ferry terminal. The beach becomes crowded with families on summer weekends and is a great place to go to relax and enjoy the sea.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종도는 서해상에 위치해 있고 인천시의 일부입니다. 영종도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하나로 곧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와 인천대교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지역이 연결되면, 수많은 새로운 발전들이 영종도 안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인천의 성장하는 경제와 통상의 중요성 이외에도, 영종도는 인천의 수산시장에서 가져온 해산물과 수많은 해변에 위치한 식당으로부터 맛볼 수 있는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합니다.

섬의 서쪽지대인 을왕리해변가는 선착터미널로부터 자가용이나 시내버스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을왕리 해변은 여름 주말에 특히 가족단위의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며 편하게 쉬면서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건국 60년 경축’ 제8회 월미음악제 *The 8th Wolmi Music Festival*

■ 기 간 : 8월 13일(수) ~ 8월 16일(토) (4회 공연)

※ 8월 14일 : 건국60년 기념 「전야 음악제」

■ 장 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일 시	행 사 명	내 용
8. 13(수) (19:30~21:30)	화려한 리듬의 현악합주단과 다이내믹한 피아노 선율이 펼쳐지는 실내악의 밤	- 일본 북구주 히비키 현악합주단 - 피아노 듀오 콘서트(4팀)
8. 14(목) (19:30~21:30)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 초청,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클래식의 향연	◆ 건국 60주년 경축 「전야음악제」 • 지휘 이경구 • 연주 인천시립교향악단 • 협연 트럼펫 알렉세이 볼코프 • 인천시립합창단 • 성악가 2명(남 테너 1명, 여 소프라노 1명)
8.15(금) (19:30~21:30)	세계의 유명 영화음악과 팝송 등을 조이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크로스오버 뮤직 축제	• 지휘 박기화 • 연주 조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뮤지컬 가수 김진석 • 합창 인천오페라합창단(50명)
8.16(토) (19:30~21:30)	해설이 있는 세계 연합 재즈 팀 초청연주 및 관악의 생동감이 넘치는 재즈 축제의 밤	• 지휘 이종관 • 출연 - 웨스트 윈드 앙상블 - 세계정상급 Forest Quintet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독일 연합) 재즈팀 - 김도향